I above I,
나를 뛰어넘어 새로운 나를 만나다

중앙대학교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 820-6393
http://admission.cau.ac.kr(입학안내)

발행처 : 중앙대학교 입학처

BECAUS CHUNG-ANG UNIVERSITY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인문계열)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
인문계열

2020 BECAUS

I above I,
나를 뛰어넘어 새로운 나를 만나다

중앙대학교

남들과 비교하기 보다는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상식에 기대기 보다는
다름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체불가한
창의 인재 중앙의 힘

I above I.
나를 뛰어넘어
새로운 나를 만나다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인문계열)

CHUNG-ANG UNIVERSITY

입학처장 메시지 005

I.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008
2. 지원자격 009
3. 전형방법 009
4. 전형일정 011

II. 인문사회/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 대비 방법 및 유의사항

1. 출제위원이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15
2. 고등학교 선생님이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17
3. 2019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19
4. 논술시험 중 유의사항 022

III.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0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025
2. 2020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036
3. 2019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043
4. 2019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054

IV.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I 063
2. 경영경제계열 073
3. 인문사회계열 II 081

V. 2019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093
2.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095
3. 논술/교과 성적 현황 097

입학처장 메시지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입학처장, 의과대학 의학부 백광진 교수입니다.

대학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중앙대학교가 새로운 100년의 첫 걸음인 2019년에, 2020학년도 논술가이드북을 출간합니다. 논술전형은 수험생의 논리적 사고력을 가늠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며, 논리적 사고능력은 대학에서의 학업습득에 필수적이고 사회활동을 위한 기본적 자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논술능력은 대학입학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험생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배양해야만 하는 중요한 기초 소양 중 하나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실시하며, 827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단일 모집 전형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형이며, 전형요소와 반영비율은 논술 60%, 학생부 40%입니다. 논술전형에 학생부를 반영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으며, 논술고사를 튼실하게 준비하는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전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상 그러했듯이 이번 2020학년도 논술에서도 우리 중앙대학교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대학교는 그동안 논술 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올해에도 중앙대학교는 다음 세 가지를 지키고자 합니다.

1.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과 수준을 넘지 않는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온전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한다.**
3. **논술 문제, 예시 답안, 채점 기준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중앙대학교는 이미 4월에 30,000여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논술시험을 실시하여 30여 명의 교수진이 학생의 답안에 대해 평가 및 첨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논술가이드북에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술가이드북에 기존 출제 문제, 올해 출제 방향, 채점 기준 등을 제시하였으며, 감점이나 가산점의 요인까지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통해서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시험 문제를 예측할 수 있고, 학교 교과 학습을 통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은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지침서입니다.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이 < IOI : I abOve I > 나를 뛰어 넘어 새로운 나를 만나실 수험생 여러분을 - 지나온 100년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100년을 꿈꾸는 - '중앙대학교'로 안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입학처장 백광진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인문계열)

I.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008
2. 지원자격 009
3. 전형방법 009
4. 전형일정 011

I.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소재지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서울	인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8
			영어영문학과		15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	5
				프랑스어문학	6
				러시아어문학	5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	5
				중국어문학	5
			철학과		6
			역사학과		6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학과		9
			공공인재학부		19
			심리학과		11
			문헌정보학과		7
			사회복지학부		1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3
			사학학과		1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0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경영학)		135
			경영학부(글로벌금융)		13
			경제학부		28
			응용통계학과		10
			광고홍보학과		12
			국제물류학과		10
			산업보안학과(인문)		5
		사범대학	교육학과		5
			유아교육과		6
			영어교육과		8
		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인문)		27
계					411

소재지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서울	자연	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자연)		5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10
			화학과		8
			생명과학과		11
			수학과		10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도시시스템공학	7
				건설환경플랜트공학	17
			화학신소재공학부		16
			기계공학부		34
			에너지시스템공학부		23
			건축학부(건축공학-4년제)		11
			건축학부(건축학-5년제)		8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55
			융합공학부		17
		소프트웨어대학			20
		의과대학	의학부		30
		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자연)		36
안성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	동물생명공학	15
				식물생명공학	13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22
				식품영양	14
			시스템생명공학과		13
		예술공학대학			21
계					416
논술전형 총계					827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선발단계	논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
일괄합산	60	20	20(출결, 봉사)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을 반영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함

구분	수능최저학력기준	기본 충족 요건
인문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의학부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4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자연(서울)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자연(안성)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 제2외국어와 한문을 사회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하여 반영함

※ 자연(서울), 자연(안성) 탐구영역 반영 기준 : 상위 1과목을 반영

※ 인문, 의학부 탐구영역 반영 기준 : 2과목 평균을 반영(단, 2과목평균 반영하여 등급 합이 기준을 0.5 초과할 경우 기준 미충족)
예) 의학부 국2, 수1, 영1, 과탐 2과목 평균 1.5인 경우 등급 합 5.5로 기준 미충족

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대상 : 2019, 2020년 2월 국내고교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1~3학년 반영교과 전체 이수과목 중 석차등급 상위 10과목에 한해 반영(학년별, 과목별 가중치 없음)

계열	반영교과	비교과
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중 상위 10과목	출결, 봉사 (정량 평가)
자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 상위 10과목	

※ 비교과 반영방법 : 아래 표의 교과 영역 환산표에 따라 서출결과 봉사시간에 해당하는 점수로 환산 후 비교과 반영비율 적용

[표] 비교과 영역 환산표

출결			봉사		
무단(사고)결석 일수	환산점수		봉사활동시간	환산점수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전형(실기형)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전형(실기형)
1일 이하	5	5	25시간 이상	5	5
2~3일	4.6	4.25	24~20시간	4.6	4.25
4~5일	3.9	3.5	19~16시간	3.9	3.5
6~7일	2.8	2.75	15~12시간	2.8	2.75
8~9일	2.1	2	11~ 8시간	2.1	2
10일 이상	1.7	1	7시간 이하	1.7	1

2) 비교내신 대상 및 반영방법

비교내신 대상	반영 방법
• 2019년 2월 이전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논술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적용
• 검정고시 출신자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	

라. 논술고사 안내

1) 출제 수준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
-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사고력과 쓰기능력 측정에 중점을 둔 출제

2) 출제 유형

- 인문계열(인문사회, 경영경제), 자연계열 논술 출제
- 자연계열의 과학논술은 생명과학, 물리, 화학 중 택 1하여 응시함

※ 원서접수 시 응시할 과학과목을 선택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계열	논술유형	모집단위	출제유형
인문	인문사회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간호학과(인문)	언어논술(3문항)
	경영경제	경영경제대학 인문계열 모집단위 전체	언어논술(2문항), 수리논술(1문항)
자연	자연	산업보안학과(자연),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대학, 예술공학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공과대학, 의학부, 간호학과(자연)	수리논술(3문항), 과학논술(생명과학, 물리, 화학 중 택 1)

3) 출제 범위

계열	논술유형	출제유형	교과	과목명
인문	인문사회/경영경제	언어논술	국어교과	국어 I , 국어 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사회, 도덕교과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영경제	수리논술	수학교과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자연	자연	수리논술	수학교과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미적분 II, 기하와 벡터
		과학논술	과학교과	과학논술은 생명과학, 물리, 화학 중 택 1하여 응시함(원서접수 시 응시과목 선택) (생명과학) 과학, 생명과학 I , 생명과학 II (물리) 과학, 물리 I, 물리 II (화학) 과학, 화학 I, 화학 II

4) 시험시간 : 120분

4. 전형일정

가. 전형전체 진행일정

구분		일시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2019. 9. 6(금) 10시 ~ 9(월) 18시	
서류제출		2019. 9. 6(금) 10시 ~ 11(수) 우편소인기준	• 해당자에 한해 우편제출 • '제출서류 및 방법' 참조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19. 11. 19(화)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개인별 시험장소 안내) • 시험장소 : 서울캠퍼스 ※ 지원인원 수에 따라 서울 소재 고교로 추가 배정
논술	자연계열	2019. 11. 23(토)	• 일정은 지원인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문계열	2019. 11. 24(일)	
최초 합격자 발표		2019. 12. 10(화)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나. 모집단위별 논술고사 일정

구분	11. 23.(토) - 자연계열		11. 24.(일) - 인문계열	
1교시 (10:00-12:00)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경영학, 글로벌금융),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인문)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 도시시스템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건축학부(건축공학-4년제, 건축학-5년제), 화학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자연)	사범대학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영어교육과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 식물생명공학), 식품공학부(식품공학, 식품영양), 시스템생명공학과		
2교시 (14:00-16:00)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역사학과, 유럽문화학부(독일어문학, 프랑스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아시아문화학부(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
	소프트웨어대학			
	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자연)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심리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사학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예술공학대학			
	의과대학	의학부	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인문)

※ 지원한 모집단위가 배정되어 있는 시험일 및 시간에 응시해야 함(타 시험시간 응시할 경우 퇴실 조치)
※ 입실은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인문계열)

II. 인문사회/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 대비 방법 및 유의사항

1. 출제위원이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15
2. 고등학교 선생님이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17
3. 2019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19
4. 논술시험 중 유의사항 022

III.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0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025
2. 2020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036
3. 2019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043
4. 2019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054

IV.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I 063
2. 경영경제계열 073
3. 인문사회계열 II 081

II. 인문사회/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 대비 방법 및 유의사항

1. 출제위원이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15
2. 고등학교 선생님이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17
3. 2019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19
4. 논술시험 중 유의사항 022

II. 인문사회/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 대비 방법 및 유의사항

1. 출제위원이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가. 통합 논술에 대한 이해

중앙대학교 인문사회/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의 방식은 통합 논술이다.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은 개별 교과목에 대한 단편적 지식보다는 다양한 교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표가 있다. 통합 논술은 수험생들의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적합한 방식이다. 수험생들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연계하는 과정을 논리적 혹은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통합 역량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시험 문제에 사용되는 제시문들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통합 논술 시험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시문은 교과서와 EBS 교재에서 발췌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내용이다. 다만, 통합 논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묻기보다는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형식적 측면에서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언어 논술형 문항 3문제,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은 언어 논술형 2문제와 수리 논술형 문항 1문제로 구성된다. 언어 논술형 문제와 수리 논술형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데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사항은 아래와 같다.

KEYPOINT

- 통합 논술에 대하여 이해하기
- 교과서에서 다뤄진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문제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 모든 제시문은 교과서와 EBS 교재에서 활용
-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과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의 차이점 알기

나. 답안 작성을 위한 팁

첫째, 언어 논술형 문제에서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정확한 독해력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읽고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논술 준비의 출발이다. 물론 독해력은 고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다. 논술 시험에 활용되는 개별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생각 단위' 또는 '대비되는 생각 단위들'을 담은 글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과서와 EBS 교재 가운데 이러한 유형의 글들을 선택하여 5~10분 내외의 정해진 시간 안에 논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둘째, 특히 논술 시험에 주어진 시간이 120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간결하게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통합 논술의 답안은 자신의 논지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쓰는 요약적인 글이라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핵심 논지에 대한 독해력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압축하여 답안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인문계열 논술 시험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6~9개)의 제시문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제시문의 전체적인 논지를 제한된 시간 내에 파악하고, 핵심 논지를 제한된 분량의 글자 수로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답안의 구성 및 형식적 측면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들은 여러 개의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 파악, 차이점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논지의 재구성 등 문제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데 적합한 글쓰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좋다. 통합형 논술에서는 여러 제시문들의 핵심 주제들을 활용하면서도 제한된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논리적 구조를 갖춘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인문계열 논술의 답안의 구조는 문제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른 문제의 경우 질문에 나타난 제시문 간의 관계 및 문제의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답안을 구조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KEYPOINT

- 정해진 시간 내에 글의 논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기르기
- 핵심 논지를 제한된 분량으로 요약하는 연습하기
- 문제의 요구 사항에 맞는 답안의 구조를 갖춘 글쓰기 연습하기

다. 수리 논술형 문제

수리 논술형 문제는 수리적 능력에 기초하여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거나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수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수리형 논술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리적 능력은 수학 교과목에서 배운 특정 개념과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수험생이 제시문과 문제에서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여 답을 찾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수리적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논리적 사고와 수리적 사고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수리 논술형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 접근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KEYPOINT

- 제시문과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 답을 찾는 논리적 과정을 수리적으로 표현하기

2. 고등학교 선생님이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논리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해결 능력을 보여주세요

정OO 선생님

가. 중앙대학교 인문사회/경영경제계열 논술의 특징

중앙대학교 논술은 논리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논술의 논제(문제)와 제시문은 특별한 배경지식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은 교과서와 EBS 교재에서 100% 출제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논술이다. 이러한 중앙대학교 논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논제(문제)의 논리 구조

논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매우 명확하다. 타 대학과 달리 논제에서 키워드(주제어)를 제시해 준다. 키워드가 가지는 의미를 제시문 간 비교 대조하면 논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논제에서 제시된 순서대로 개요를 짜고 글을 작성하다 보면 손쉽게 글이 완성되는 구조이다. 즉, 논제는 수험생이 글을 써야 하는 목표이자 글이 나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해 준다.

둘째, 소재의 창의적 결합

논제에서 키워드의 범위를 한정한 반면, 제시문은 다양한 형식과 생각, 여러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어떤 소재들을 활용·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설명과 해석의 방식이 나오며, 중앙대학교는 이러한 창의적 결합과 융합을 인정한다. 다만 논리 전개 과정이 합리적이고 제시문 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

셋째, 지식보다 통섭

제시문은 다양한 종류의 글이 제공된다. 그래서 글의 종류에 따라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 및 관점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글에 따라 키워드의 의미 부여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시문 간의 관계와 의미 차이 등을 비교하면서 논제의 키워드 의미를 수험생이 이해한 키워드 의미로 변환시키고,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제시문들을 아우르며 재해석해야 한다. 즉,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통섭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중앙대학교 논술은 논제와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이 가장 중요하며, 가지고 있는 지식 활용보다는 제시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찾고 연관 짓는 능력, 즉 창의적 재구성 능력을 평가한다.

나. 효과적인 중앙대학교 논술 대비법

학생들이 중앙대학교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을준비해야 한다.

첫째, 독해력

중앙대학교는 논제에서 키워드(주제어)를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다. 즉,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 제시문 별로 키워드가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적용되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을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느냐를 가장 기본적으로 평가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비판적 읽기를 해야 한다. 즉, 글의 전체 내용뿐만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글을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특히 특정한 시점으로 글을 읽고 분석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제시문에 사용되는 글의 유형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평소 다양한 제시문을 접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앙대학교에서는 문학 작품, 비문학 작품, 함축적 의미가 들어간 글, 지시적인 글 등 다양하게 제시된다. 같은 글의 유형에 따라 키워드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해석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의 활용과 의미 부여, 관점의 변화 등에 주의하며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제시문 안에서, 혹은 제시문 간에 비교·대조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나 EBS 교재를 꼼꼼히 읽어 보거나 비교표를 만들어 채워 넣는 등의 방법을 권한다. 독해력을 높이는 방법은 역시 천천히 많은 글을 읽는 것이 왕도이다.

둘째, 여러 교과 지식 및 학습 경험의 연계

중앙대학교의 논제는 제시문을 단순 비교 설명하는 형태가 아니다. 키워드 안에 내포된 의미나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비교하며 드러내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의미나 영향이 제시문에 숨겨져 있다. 이러한 숨겨진 것은 결국 학생 개개인의 경험이나 지식 체계, 논리적 접근 방식에 따라 일부만 혹은 완전히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언어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윤리적·법적 관점 등을 다각적으로 적용할 때 글의 의미 및 의도를 명확히 알고 구분해 낼 수 있다.

논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는 공통 교육과정 안에서 제시되기 때문에 특정 교과를 공부하였는지 여부가 유불리의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하나의 시점에서 다른 시각을 비판하는 문제 유형을 대비하고 연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교과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 사회문제발생의 근본 원인들은 각 교과의 관점과 연계해서 읽고 재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셋째, 논리적 글쓰기

논술은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를 측정한다. 중앙대학교 논술 역시 객관적 사고와 논리성, 창의성을 측정하려 한다. 이 사항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글쓰기다. 중앙대학교 논술에서 글쓰기는 의외로 간단하면서 쉽다. 주어진 논제가 시키는 순서대로 작성을 하다 보면 '서론-본론-결론'의 완성된 글이 된다. 그런데 막상 글을 쓰다 보면 글의 순서가 얽히고 방향성을 잃기도 한다. 이는 제시문에서 키워드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논리적 글쓰기와 비판적 읽기는 결국 통한다. 글을 쓰기 전에 읽기를 먼저 완성해야 한다.

틈나는 대로 교과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다. 교과서는 특정 지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에 대한 배경에서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확장된 지식을 전달해 준다. 논술과 수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평소에는 EBS 교재를 활용하고, 주말 등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과서를 정독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방법이다.

3. 2019학년도 논술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꾸준한 글쓰기 연습으로 실력을 키워 두세요

인문계열 양OO

Q. 중앙대학교 논술 고사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타 대학과 비교 되는 중앙대학교 논술 고사만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방대한 제시문의 양'입니다. 제시문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질문에 맞는 제시문을 선별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론-본론-결론'의 탄탄한 구조를 갖춘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글을 쓸 기회가 적은 고등학생이 처음부터 탄탄한 구조를 갖춘 글을 쓰기란 쉽지 않기에 학교 선생님께서는 먼저 저에게 여러 가지 제시문을 읽고 글의 개요를 짜는 연습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 어느새 글을 구상할 때 자연스레 '서론-본론-결론'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실제 논술 시험장에서 방대한 양의 제시문을 마주하였을 때에도 겁먹지 않고 차분히 글의 구조를 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시되는 제시문'입니다. 저는 작년에 중앙대학교를 포함한 총 6개의 서울 최상위권 대학의 논술 고사에 응시하였는데요, 중앙대학교와 달리 일부 타 대학에서는 고교 교육과정과 전혀 연계되지 않은 제시문을 출제하여 논술 고사 도중 매우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대학교 논술 고사의 제시문은 비록 그 양은 많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한 번쯤 접해본 문학 작품이나 사회탐구과목의 내용 등이 출제되었기에 논술 시험에 아주 편하게 응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질문 간의 유기적 연관성'입니다. 중앙대학교 논술 고사는 총 세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질문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닌,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즉 어느 하나의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답변에도 올바르게 답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첫 질문에서부터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질문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올바른 답변을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견해가 섞인 여러 가지 제시문을 일정한 기준을 잡고 분류하는 연습을 많이 하였고, 이는 시험장에서 질문자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모의 논술 첨삭 시스템'입니다. 저는 6월 중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중앙대학교 모의 논술 고사에 응시하였고 7월 중에는 제가 제출한 글에 대한 교수님의 친절한 첨삭과 함께 제 성적 또한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모의 논술 고사를 통해 그 해 논술 고사가 대체로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를 알 수 있기에 저는 남은 시간 동안 교수님의 첨삭을 토대로 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떻게 중앙대학교 논술 고사를 준비했나요?

A.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2월부터 9월까지 대략 8개월간 논술 고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따로 학원을 다니진 않았으며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뒤 학교 선생님과 함께 서울 최상위권 주요 대학의 역대 논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며 논술 고사에 대비하였습니다.

Q. 중앙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 중앙대학교 논술 고사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제시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시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글쓰기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진정한 논술 고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타고난 글쓰기 실력이 없더라도 꾸준히 연습을 한다면 누구든지 논술 고사에 최종 합격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논술지문이 모두 교과서에서 나오는 만큼, 수능, 내신, 논술을 연관지어 준비하세요

인문계열 곽OO

Q. 중앙대학교 논술 고사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제가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한 이유는 논술 문제가 난해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별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지문과 답안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대학교 논술은 교과서에 기반한 지문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무리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소신 있는 의견과 창의성에 더 중점을 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대학교 논술은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만큼 친절한 논술가이드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논술 인재상, 논술 채점 기준, 합격자들의 합격 수기 등 중앙대학교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채점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전 계획을 세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Q. 어떻게 중앙대학교 논술 고사를 준비했나요?

A. 제가 논술 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고등학교에서 열렸던 논술 특강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특강을 통해 원고지 작성법, 문제 유형 파악, 논술 지문 독해, 구체적인 글 작성법 등 논술에 필요한 모든 기초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별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학교별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대입 논술을 대비할 때 가장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 각 학교 논술의 특징, 문제 유형, 난이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자신이 어떤 학교의 논술과 잘 맞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써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쓰면서 배우자'는 생각으로 기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입니다.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논술 인재에 관해서는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논술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논술가이드북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실전 계획을 세우신다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중앙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 수능 보기 전의 경쟁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에 미리 겁먹지 말고 수능 공부를 우선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 및 내신 과목과 논술의 연관성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논술 지문도 결국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세요

인문계열 박OO

Q. 중앙대학교 논술 고사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중앙대 논술은 타 대학 논술에 비해 간결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간결한 문장으로, 문단을 구분하지 않고 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대학에 비해 분량 제한이 다소 있는 편이기에, 이를 염두에 두고 간결하게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문항의 경우, 예시 답안에 제시된 유형을 바탕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글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문항의 경우 '여러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발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제시문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시문을 천천히 읽고, 제시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역할을 설정하여, 여러 제시문을 하나의 답안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문항은 두 제시문을 비교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경우, 두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을 번갈아 가며 특정 항목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어떻게 중앙대학교 논술 고사를 준비했나요?

A. 많은 학생들이 논술과 다른 입시 공부를 동떨어져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찾는다는 맥락에서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약점을 알기 위해서는 첨삭과 같은 방식을 통해 자신의 글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감내한다면 자신의 글쓰기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대학의 논술고사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예시 답안과 논술가이드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중앙대학교만큼 논술고사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학교가 없기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Q. 중앙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 논술은 수능과 형식이 다를 뿐, 시험 당일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날은 글을 잘 썼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어떤 날은 글을 못 썼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논술 준비 과정이 어떠하든 시험 당일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주위에 친구들과 비교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논술을 운이라고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해진 채점 기준이 있고, 대학마다 정해진 특징이 있기에 반복적인 학습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딱한 수능 공부에서 잠시 벗어나 논술을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4. 논술시험 중 유의사항

- 시험 시작 전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 놓아야 해요.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
- 문제지를 받으면 반드시 첫 장의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을 꼼꼼히 읽고 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세요.

- 인문사회계열 I 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시오.
6.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
7.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8.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9.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 놓으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시자 성명 _____(서명)

CAU CHUNG-ANG UNIVERSITY

-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은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답안은 흑색 필기구로 작성해야 해요. 수정액, 수정테이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해야 하므로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띄어쓰기 포함)을 지키세요.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합니다.
-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해야 해요(단, 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그렇지 않으면 감점을 받게 됩니다. 답안의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문단은 나누지 마세요.

가. 답안 작성의 올바른 예

고향이 갖는 의미와 고향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에서 고향은 성황고로 인해 비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정화로운 이미지로 마음에 자리 잡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일제의 수탈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화된 고향의 모습을 본 후 슬퍼하면서 상실감을 느낀다. (나)에서 고향의 의미는 전통이 보전되고 삶의 스승인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다. 그러나 사라진 왕소나무로 상징되는 낙후된 모습에서 고향이 타락했다는 배달음이 상실감의 원인이 되었다. (다)에서 고향은 이민 2세대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만, 동질감을 느꼈던 곳에서 외모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이방인임을 자각한다. (라)의 고향은 정처 없는 삶을 끝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착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업적 저당로 인해 곱변한 고향 소식을 접한것을 계기로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고향을 상실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고향은 정화와 행복, 전통과 추억, 소속감, 향수 등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상실하게 된 이유는 상업화, 산업화, 외세 침략, 정체성 혼돈 등 다양하다.

나. 답안 작성의 잘못된 예

고향이 갖는 의미와 고향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에서 고향은 성황고로 인해 비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정화로운 이미지로 마음에 자리 잡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일제의 수탈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화된 고향의 모습을 본 후 슬퍼하면서 상실감을 느낀다.
(나)에서 고향의 의미는 전통이 보전되고 삶의 스승인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다. 그러나 사라진 왕소나무로 상징되는 낙후된 모습에서 고향이 타락했다는 배달음이 상실감의 원인이 되었다.
(다)에서 고향은 이민 2세대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만, 동질감을 느꼈던 곳에서 외모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이방인임을 자각한다.
(라)의 고향은 정처 없는 삶을 끝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착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업적 저당로 인해 곱변한 고향 소식을 접한것을 계기로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고향을 상실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고향은 정화와 행복, 전통과 추억, 소속감, 향수 등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상실하게 된 이유는 상업화, 산업화, 외세 침략, 정체성 혼돈 등 다양하다.

-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고, 답안지에는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는 어떤 것도 적지 마세요.
-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면 감점을 받게 됩니다.
- 시험 종료30분 전부터는 답안지 교체가 허용되지 않아요.

I above I

나를 뛰어넘어 새로운 나를 만나다

III.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0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025
2. 2020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036
3. 2019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043
4. 2019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054

III.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0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가.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아 정체성이란 '나 자신에 대한 통합된 관념'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나'의 성격, 취향, 관심, 능력, 가치관 등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이 지속적이고 통합적일 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는 이미지나 메시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이며 다중적이다. 여러 개의 아이디나 대화명, 아바타 등을 사용하면서 나이, 성별, 인종 등 신분이나 성격 등을 상황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대로 자아를 구성하고, 없애고, 재구성하다 보면 지속적이고 통일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현실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속성의 사이버 자아들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사이버 자아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한 폭력적인 행동을 실제 현실에서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자아로 인해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은 가치관에도 혼란이 올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행위자가 구속감을 훨씬 적게 느끼고 긴장감이 없어, 보다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탈억제 심리가 잘못 작용할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즉 사이버 자아를 통해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거친 말을 사용하여 분노, 증오 등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주 하다 보면 가치관의 혼란이 나타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

(나) 기차가 등장하자 사정은 달라졌다. 철도가 나타날 무렵, 서양에서는 우편 마차가 가장 빠른 교통편이었다. 그래 봤자 마차의 속도는 시속 17킬로미터 정도였다. 기차는 시간당 60킬로미터를 넘게 달린다. 그만큼 철도가 놓인 도시들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이제 시간은 제각각이어서는 안 되었다. 마차나 배는 마주치면 서로 비켜 가면 된다. 그러나 기차는 다르다. 철로 위에서 기차끼리 마주치면 대형 사고가 된다. 그렇다고 철로를 한정 없이 새로 깔 수도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기차끼리 마주치지 않으려면 여러 곳의 시간이 같아야 한다.

게다가 산업이 발전할수록 여러 도시는 같이 움직여야 한다. 예전에는 농사짓고 물건을 만드는 일이 대부분 한 동네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철도가 놓인 다음에는 달랐다. 예컨대 아침에 다른 도시에서 부품이 들어오면, 날짜에 맞추어 조립하여 또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 '우리 마을 식으로' 여유 있게 시간을 썼다간 열차를 놓치기 일쑤다. 그러면 다른 곳에까지 피해가 돌아간다.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여 시간을 단속해야 했다.

기차가 더 많이 놓이고 세상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모든 것을 꿰뚫는 규칙처럼 되어 갔다. '철도 시간은 무지막지했다. 마차는 말이 지치는 만큼만 달린다. 말의 숨소리가 거칠면 말에게 휴식을 주어야 했다. 그러나 기차는 말과 다르다. 기차는절대 지치는 법이 없다. 출발과 도착 시간에는 멈춤도 예외도 없어야 했다. 철도가 지나가는 길이 숲이건, 사막이건, 습지이건 상관이 없었다. 출발과 도착 시간만 중요할 뿐이다. 중간의 과정이 어찌 되었건 시간은 칼같이 맞추어야 했다.

시간은 세상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닦달하기 시작했다. 지쳤건, 힘든 일이 있었건, 모든 일은 '끝내기로 한 날짜'에 맞추어야 한다. 안 그러면 그때에 맞춰 일을 시작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이제 '시간 엄수'는 아주 중요한 도덕이 되었다.

시간이 하나가 되자 시계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보다 식사 시간이기에 밥을 먹는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수업 시간이 되었기에 공부한다. 쉬고 싶어서 쉬기보다는 휴식 시간이기에 책상에서 일어선다.

(다) 이제 어디를 가나 아리바바의 참깨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디선가 전자 감응 장치의 음흉한 혀끝이
날름날름 우리의 몸을 핥는다 순간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하여 간다.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날개 없는 키위새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
정작, 두 손으로 힘겹게 열어야 하는
그,
어떤,
문 앞에서는,
키위키위 울고만 있을 것이다.

(라) 인터넷은 1960년대 미국에서 군사 및 학술적 목적의 정보 교환을 위해 몇몇 컴퓨터들의 통신 네트워크를 만든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 칭하는 것은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정보망이다. 웹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보망에 컴퓨터를 연결하면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거기에 올라 있는 웹페이지, 문서, 사진 등 여러 형태를 가진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도 웹에 원하는 자료를 올릴 수 있다.

인터넷의 세계는 컴퓨터, 모뎀, 통신 케이블, 여러 소프트웨어의 복합체 이상의 그 무엇이다.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자료를 교환하면서 만들어지는 가능성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 미국 철학자 허버트 드레퓌스의 말처럼, 인터넷은 처음의 개발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진화하는 새로운 종류의 기술 혁신이다. 그래서 그 완성된 모습에 대한 상도 없고 그 발전의 방향도 알 수 없다. 학술 및 군사용 정보 교환이라는 최초의 목적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행위들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중략]

인터넷을 '정보 고속도로'라 부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정보의 장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는 세상을 더욱 투명한 곳으로 만들어 불합리한 억압을 없애기도 한다. 저소득층이나 저개발국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것이 곧 그들에게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독재 국가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방의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런 견해에서 비롯된다.

풍부한 정보의 보고라는 점과 더불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터넷의 특징으로 자주 거론된다. 이전의 미디어들은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일방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정보 공급자가 될 수 있다. 개인 홈페이지는 물론, 댓글이나 토론 게시판 등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존의 모든 미디어가 인터넷에서 통합되면서 쌍방향 의사소통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마) 노르웨이의 범죄학자 매티슨은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패놉티콘이 근대 사회의 감시의 원리로 자리 잡았던 19세기 동안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할 수 있는 언론과 통신 기술이 발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발달을 시놉티콘이라고 명명했다. 패놉티콘과 달리 시놉티콘은 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 서로를 보는 메커니즘이었다. 19세기 이후에 사회의 패놉티콘화가 진행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대중과 권력이 서로를 감시하는 시놉티콘도 발달했다는 것이다. 매티슨은 패놉티콘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인 역감시의 존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바로 여기에 푸코의 역사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중요한 기제임이 분명하지만 이에는 한계가 있다. 의회와 언론이 비대해지면서 이것이 원래 취지와는 다른 그 자체의 독자적인 논리를 획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권력화했다는 점이 그렇다. 권력을 행사하여 재산 모으기를 일삼는 의원,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당략에 의해 좌우되는 입법 과정은 국회가 선거철에만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척할 뿐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말초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 경쟁에 여념이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특정 정당과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신문에 대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텔레비전을 끄거나 신문 구독을 중단하는 일밖에 없다. 게다가 정치인이나 사회의 권력자는 언론을 장악하거나 이를 잘 이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다. 물론 의회와 언론이 아직 역감시를 수행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관들은 이제 그 자체가 역감시의 대상이 된 것이다.

(바)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인들이 각종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의 양이 많아져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에 쉽게 의존하거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특정 정보에만 집착하게 될 수 있다. 지금도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매체

에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많은 정보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될까?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효율 저하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또 양적 증대에 비해 정보의 질은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는 현실은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한편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는 계층이나 기업은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며,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정보의 증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를 '정보 격차'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컴퓨터 조작에 서투른 중년층 직장인이 거부감을 느껴 결국 출근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정보 격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 격차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인종, 기업과 국가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없애려는 노력은 정부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차원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 통신 기술은 컴퓨터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두뇌와 신경을 비약적으로 확장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양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관계와 사고방식,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불러올 위험성도 있다.

(사) 우리 시대 이전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침해가 표면적이었으며, 자연의 확고한 균형 상태를 파괴하기에는 미약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 기술은 무한한 진보를 거쳐 자연을 파괴하였으며,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학 기술이라는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불행을 끼치지 않도록 통제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청한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미리 예견된 인간의 왜곡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보존해야 할 인간의 개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래에 닥쳐올 공포와 재난을 미리 발견하여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려움과 경외감을 포함하는 책임감이 행위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먼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앙이나 참사를 미리 염려해 우리 스스로 막강한 권력을 제어해야 한다. 미래의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아) 영화 '네버 렛미고'에서는 복제 인간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완료'를 사용한다. 그들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에서는 인간과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영화에서는 복제 인간들의 삶이 인간들보다 더 인간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복제 인간의 비참함이 잘 드러난다. 그들의 인생은 매우 짧다. 장기 이식을 20살부터 시작해서 그 후 몇 번의 반복된 수술을 거친다.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복제 인간들의 장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도 갖지 못한다.

(자) 결과론적 윤리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불행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간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복과 만족을 불러오고 쾌락을 증진하는 삶을 도덕적인 삶으로 이해한다. 도덕적인 것이 그 자체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곧 도덕적인 것으로서, 좋음이 옳음을 낳게 된다. 결과론적 윤리는 이성의 보편타당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결과의 효용성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다른 행위보다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본다.

한편 장자는 자연스러운 본성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할 삶의 태도로써 자급자족과 평등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등은 인간과 사물의 자연적 본성은 같다고 보는 장자의 만물제동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장자는 "인간을 포함한 각각의 사물에는 도가 있으며, 도의 차원에서 보면 만물은 평등하다."라고 말한다. 사물에 대한 귀천, 고하, 시비, 선악의 구별은 자기중심적 사고, 즉 편견에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장자의 견해이다.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소요의 경지나 세상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보는 제물의 경지는 모두 장자가 추구한 도를 따르는 이상적인 상태이다.

[문제 1] 기술 사용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견해를 비판해 보고,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견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의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제시문 (자)의 공리주의와 장자의 입장에서 각각 평가해보시오. [20점, 400-420자]

나. 예시 답안 및 해설

[문제 1] 기술 사용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KEYPOINT

- 문제에서 주어진 핵심어를 통해 제시문 읽기
- 각 제시문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논지가 직간접적으로 표현된 핵심 어구 파악하기
- 파악한 핵심 어구들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요약하기
- 각 제시문의 차이점을 종합하여 창의적인 결론 도출하기

1) 예시 답안

(가)~(라)는 기술 사용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보여준다. (가)는 사이버 공간의 이용이 안정적인 정체성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다중적 자아 형성이 가능하고 구속감이 적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서 비롯됐다. (나)는 개인의 일상이 시간에 지배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철도를 무한정 건설할 수 없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타 지역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다)는 개인이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의식하지 못한 사이 자동문의 편리함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인터넷이 정보 접근과 쌍방향적 소통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컴퓨터의 연결이 증가하면서 발명자의 의도를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체성 혼란, 시간에 지배, 점진적 무기력화, 정보 접근과 쌍방향적 소통 범위의 확대 등 기술 사용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시간의 표준화, 편리성에 대한 적응, 통신기술의 혁신과 이용방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569자)

2) 해설

수험생들은 제시문을 독해하기 전에 먼저 주어진 문제를 두 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수험생들은 우선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공통적으로 '기술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즉 기술 사용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한 근본 '원인'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네 제시문의 논지가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출제 의도를 이해한 후, 각각의 제시문 속에서 '결과'와 '원인'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핵심 어구를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고 압축해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글쓰기가 필요하다. 제시문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해당 주제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선행 지식이나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출제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를 꼼꼼히 분석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시문 (가)의 두 문장, 즉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대로 자아를 구성하고, 없애고, 재구성하다 보면 지속적이고 통일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에서 기술 사용의 '결과', 즉 사이버 공간의 이용이 안정적인 자아 정체성의 형성과 유지를 어렵게 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제시문 (가)의 다른 두 문장, 즉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는 이미지나 메시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이며 다중적이다."와 "사이버 공간에서는 행위자가 구속감을 훨씬 적게 느끼고 긴장감이 없어, 보다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를 통해 다중적 자아 형성이 가능하고 구속감이 적은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앞서 언급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시문 (나)를 읽어보면, 철도를 무한정 건설할 수 없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다른 지역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개인의 일상이 시간에 지배되는 예기치 못한 결과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는 문학 지문이기 때문에 결과와 원인이 직접 기술되어 있기보다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 암시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결과와 원인을 찾기가 다른 제시문에 비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지문을 잘 분석해 보면 핵심 어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하여 간다." 혹은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와 같은 시구에서 기술의 반복적 사용으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차츰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와 같은 시구가 암시하듯이, 부지불식간 자동문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현대인의 모습에서 무기력한 수동성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시문 (라)에서는 컴퓨터 간의 연결이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이 애초의 발명자의 의도를 뛰어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터넷은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술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각 제시문에서 찾은 "결과와 원인"을 서론, 본론, 결론 형식에 맞춰 자신의 문장으로 논리적으로 기술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주제에 대한 긴 배경 설명이나,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된 도입부보다는 간단하고 짧게 서론을 기술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서론을 길게 쓰면 본론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글을 마무리 짓는 결론을 쓸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간명한 서론이면 충분하다. "(가)~(라)는 기술 사용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보여준다." 본론을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안배 기술'이 필요하다. 제시문 별로 결과와 원인을 각각 다른 문장으로 나눠 기술하거나, 제시문 별로 결과와 원인을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하여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특정한 제시문에 대한 답안을 다른 제시문에 비해 너무 길게 쓰거나 짧게 쓰는 것은 피해야 한다. 네 제시문에 대한 답안의 분량이 균형 있게 배치되면 본론의 짜임새와 가독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론의 분량은 짧지만 논술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본론에서 '결과와 원인'을 잘 요약했어도 결론을 맺지 않거나 너무 상투적이면 고득점을 받기 어렵다. 가장 피해야 할 결론 형식은 서론과의 동어반복이다. 말하자면 네 제시문에서 발견한 '결과와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를 서술하지 않고 "따라서 기술 사용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와 같은 추상적인 문장으로 결론을 대신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본론에서 압축한 요약문을 근거로 각 제시문 사이의 차이점을 찾고, 이를 종합하여 창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결론 쓰기에서 필요한 덕목은 본론에서 기술한 내용을 유사한 개념어로 압축하는 능력이다. 짧은 결론에 풍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결단력 있는 단어 선택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문제 1]의 결론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정체성 혼란, 시간에 지배, 점진적 무기력화, 정보 접근과 쌍방향적 소통 범위의 확대 등 기술 사용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시간의 표준화, 편리성에 대한 적응, 통신기술의 혁신과 이용방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견해를 비판해 보고,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견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KEYPOINT

- 비판 대상이 되는 제시문과 비판 기준이 되는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 비판 근거가 되는 제시문의 논지를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기
- 근거가 되는 제시문의 논지를 토대로 대안 제시하기
- 두 개의 세부 문제를 고려하여 답안의 분량을 적절히 배분하기

1) 예시 답안

(라)는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접근의 보편성과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 그리고 쌍방향 의사소통 덕분에 경제 발전 및 정치적 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마)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론과 의회가 대중의 수동적이고 무비판적 태도를 이용하여 스스로 권력화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역감시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지에서 볼 때, 기술의 긍정적 가능성만을 강조하는 (라)의 견해는 기술이 권력자의 사익 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술 사용의 낙관론 에서 벗어나서 정보의 편향, 정보격차,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 등과 같은 기술 사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이 국내적 차원뿐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의 무비판적 사용이 현재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윤리학의 토대 위에 해야 할 일의 기준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553자)

2) 해설

[문제 2]는 두 개의 세부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세부 문제는 (마)의 논지를 근거로 하여 (라)의 견해를 비판할 것으로 요구한다. 이를 위해 (라)의 견해와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각 제시문을 읽어 보면 (라)는 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마)는 기술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언급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어떤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지, 어떤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그 논지를 서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라) 제시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도약이나 정치적 혜방이 가능해질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으로 인해 누구나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일어나고 쌍방향 소통으로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논지를 파악한 후, (라)의 견해를 예시 답안처럼 '~ 덕분에 ~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로 간결하게 서술해야 한다. 제시문 (마)는 긍정적 역할을 했던 언론과 통신기술이 어떻게 역감시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마)의 논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며 (라)의 견해를 비판하는 근거가 된다. 제시문 (마)에서 "권력을 행사하여 재산 모으기", "당락에 의해 좌우되는", "시청률 경쟁", "정당과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지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텔레비전을 끄거나 구독을 중단하는 일밖에 없다", "언론 장악" 등과 같은 핵심 어구를 파악하여 어떻게 역감시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간결하게 서술해야 한다. 그런 다음, (마)의 논지를 다시 압축하면서 이를 간과한 (라)의 견해를 비판하는 것으로 답안을 작성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세부 문제는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의 견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라)의 견해는 첫 번째 세부 문제를 해결할 때 파악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파악하고 두 논지를 통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바)는 기술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 즉 정보의 편향, 정보 격차, 경제적 불평등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사)는 기술 사용에 따른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두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서로 보완되는 지점을 파악하여 하나의 논지로 묶어내야 한다. 제시문 (바)와 (사)의 연결고리는 기술 사용에 따른 위험성이므로, (바)는 (사)가 예견해야 한다는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사)는 (바)와 같은 기술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예견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두 논지를 통합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제시문의 논리적 연계성과 보완성을 찾아 내어 예시 답안처럼 서술한다면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3] 제시문 (아)의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제시문 (자)의 공리주의와 장자의 입장에서 각각 평가해 보시오. [20점, 400-420자]

KEYPOINT

- 제시문에 근거하여 핵심논지 압축적 요약하기
- 위에서 파악한 기준들을 각각 적용하여 대상을 평가하기

1) 예시 답안

(아)에서 인간은 복제 인간의 장기를 반복적으로 이식하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신체를 관리한다.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자)에 제시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장자의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리주의는 인간 에게 행복과 쾌락을 주는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되는지를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르면 (아)의 인간의 행위는 복제 인간을 희생시켜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한편, 장자는 만물은 자연적 본성을 갖고 있고 동등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아)의 인간은 복제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을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416자)

2) 해설

[문제 3]이 요구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째,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평가 대상으로서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와 평가 기준으로서 '공리주의와 장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둘째, 공리주의와 장자의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 입장에서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있어야 한다.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먼저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와 '공리주의와 장자의 입장'을 정확하고도 압축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시문을 읽으면서 관련된 핵심 어구를 파악하고, 이를 본인의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간 이 복제 인간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서술하기 위해 "장기 이식", "반복적 수술", "장기 보호", "행동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등과 같은 핵심 어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어구를 활용하여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한 문장으로 서술해야 한다. 예컨대, 예시 답안에 서술된 바와 같이, "인간은 복제 인간의 장기를 반복적으로 이식하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신체를 관리한다."로 표현할 수 있다. 공리주의 입장은 "결과론적 윤리", "행복", "쾌락", "유익한 것이 곧 도덕적인 것", "결과의 효용성", "더 많은 공리" 등과 같은 핵심 어구들을 활용하여, 장자의 입장은 "만물제동", "자기중심적 사고", "인정", "평등" 등의 핵심 어구를 활용하여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대상과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공리주의와 장자의 관점에서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단순히 공리주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하다는 식으로 서술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를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라는 맥락에 적용하여 설명해야 한다. 즉, 결과론적 윤리인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는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결과론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서술해야 한다. 예시 답안처럼,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목숨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편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것을 강조하는 장자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복제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반론적 관점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근거를 제시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다 파악했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답안으로 엮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에 대한 답은 주어진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주어진 문제는 공리주의 입장과 장자의 입장에서 각각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병렬적 서술 방식을 취하면 된다. 예시 답안처럼, 평가 대상이 되는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해주고, 그 다음 '공리주의 입장에 대한 요약과 공리주의 입장에 근거한 평가', '장자의 입장에 대한 요약과장자의 입장에 근거한 평가'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면 가독성이 높은 문단 구성이 될 것이다.

다. 채점 기준

[문제 1] 채점 기준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❶ 각 제시문에서 각각 계기와 방식을 찾아 제시(32점)		
	❷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문제 2] 채점 기준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❶ (라)와 (마)의 논지를 파악한 후 (마)에 근거하여 (라)의 견해를 비판했는지 평가(20점)		
	❷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를 보완하는 접근법을 제시했는지 평가(20점)		

[문제 3] 채점 기준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❶ 제시문 (마)에서 인간이 복제 인간을 대하는 행위를 파악한 경우 (4점)		
	❷ 제시문 (자)의 공리주의와 장자의 관점에서 제시문 (마)의 인간이 복제 인간을 대하는 행위를 각각 평가한 경우 (16점)		

라. 제시문 출전

- 제시문 (가): 「사이버 공간의 자아 정체성」, 조성민 외 6인,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013(2017), 148-149쪽.
- 제시문 (나): 안광복, 「철도와 시간」, 문영진 외 11인, 『국어 Ⅱ』, 창비, 2013(2016), 98-99쪽.
- 제시문 (다): 유하, 「자동문 앞에서」, 조현설 외 30인, 『국어 Ⅰ』, 해냄에듀, 2013(2017), 258쪽.
- 제시문 (라): 손화철, 「정보의 바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문영진 외 8인, 『국어 Ⅰ』, 창비, 2013(2018), 59-64쪽.
- 제시문 (마): 홍성욱, 「패놉티콘」, 한철우 외 7인, 『독서와 문법』, 교학사, 2013(2017), 224-229쪽.
- 제시문 (바): 이필렬, 「21세기 정보 통신 기술의 혁명」, 박영목 외 12인, 『국어 Ⅰ』, 천재교육, 2013(2017), 163-166쪽.
- 제시문 (사): 요나스, 「책임의 원칙」, 변순용 외 8인,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2013(2017), 126쪽
- 제시문 (아): 「생각」, 조성민 외 6인,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015, 70쪽.
- 제시문 (자): 「상대주의적 평등적 세계관」, 「결과론적 윤리의 특징」, 박효종 외 9인,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7, 83쪽, 137쪽.
  「현대 공리주의와 그 의의」, 박찬구 외 9인,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2016, 165쪽.
  「장자의 사상」, 정창우 외 11인,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5, 99쪽.

2. 2020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가.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아 정체성이란 '나 자신에 대한 통합된 관념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나'의 성격, 취향, 관심, 능력, 가치관 등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이 지속적이고 통합적일 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는 이미지나 메시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이며 다중적이다. 여러 개의 아이디나 대화명, 아바타 등을 사용하면서 나이, 성별, 인종 등 신분이나 성격 등을 상황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대로 자아를 구성하고, 없애고, 재구성하다 보면 지속적이고 통일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현실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속성의 사이버 자아들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사이버 자아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한 폭력적인 행동을 실제 현실에서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자아로 인해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은 가치관에도 혼란이 올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행위자가 구속감을 훨씬 적게 느끼고 긴장감이 없어, 보다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탈억제 심리가 잘못 작용할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즉 사이버 자아를 통해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거친 말을 사용하여 분노, 증오 등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주 하다 보면 가치관의 혼란이 나타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

(나) 기차가 등장하자 사정은 달라졌다. 철도가 나타날 무렵, 서양에서는 우편 마차가 가장 빠른 교통편이었다. 그래 봤자 마차의 속도는 시속 17킬로미터 정도였다. 기차는 시간당 60킬로미터를 넘게 달린다. 그만큼 철도가 놓인 도시들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이제 시간은 제각각이어서는 안 되었다. 마차나 배는 마주치면 서로 비켜 가면 된다. 그러나 기차는 다르다. 철로 위에서 기차끼리 마주치면 대형 사고가 된다. 그렇다고 철로를 한정 없이 새로 깔 수도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기차끼리 마주치지 않으려면 여러 곳의 시간이 같아야 한다.

게다가 산업이 발전할수록 여러 도시는 같이 움직여야 한다. 예전에는 농사짓고 물건을 만드는 일이 대부분 한동네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철도가 놓인 다음에는 달랐다. 예컨대 아침에 다른 도시에서 부품이 들어오면, 날짜에 맞추어 조립하여 또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 '우리 마을 식으로' 여유 있게 시간을 썼다간 열차를 놓치기 일쑤다. 그러면 다른 곳에까지 피해가 몰아간다.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여 시간을 단속해야 했다.

기차가 더 많이 놓이고 세상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모든 것을 꿰뚫는 규칙처럼 되어 갔다. '철도 시간은 무지막지했다. 마차는 말이 지치는 만큼만 달린다. 말의 숨소리가 거칠면 말에게 휴식을 주어야 했다. 그러나 기차는 말과 다르다. 기차는 절대 지치는 법이 없다. 출발과 도착 시간에는 멈춤도 예외도 없어야 했다. 철도가 지나가는 길이 숲이건, 사막이건, 습지이건 상관이 없었다. 출발과 도착 시간만 중요할 뿐이다. 중간의 과정이 어찌 되었건 시간은 칼같이 맞추어야 했다.

시간은 세상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닦달하기 시작했다. 지쳤건, 힘든 일이 있었건, 모든 일은 '끝내기로 한 날짜에 맞추어야 한다. 안 그러면 그때에 맞춰 일을 시작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이제 '시간 엄수'는 아주 중요한 도덕이 되었다.

시간이 하나가 되자 시계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보다 식사 시간이기에 밥을 먹는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수업 시간이 되었기에 공부한다. 쉬고 싶어서 쉬기보다는 휴식 시간이기에 책상에서 일어선다.

(다) 이제 어디를 가나 아라바바의 참깨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디선가 전자 감응 장치의 음흉한 혀끝이
날름날름 우리의 몸을 핥는다 순간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하여 간다.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날개 없는 키위새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
정작, 두 손으로 힘겹게 열어야 하는
그,
어떤,
문 앞에서는,
키위키위 울고만 있을 것이다.

(라) 인터넷은 1960년대 미국에서 군사 및 학술적 목적의 정보 교환을 위해 몇몇 컴퓨터들의 통신 네트워크를 만든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 칭하는 것은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정보망이다. 웹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보망에 컴퓨터를 연결하면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거기에 올라 있는 웹페이지, 문서, 사진 등 여러 형태를 가진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도 웹에 원하는 자료를 올릴 수 있다.

인터넷의 세계는 컴퓨터, 모뎀, 통신 케이블, 여러 소프트웨어의 복합체 이상의 그 무엇이다.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자료를 교환하면서 만들어지는 가능성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 미국 철학자 허버트 드레퓌스의 말처럼, 인터넷은 처음의 개발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진화하는 새로운 종류의 기술 혁신이다. 그래서 그 완성된 모습에 대한 상도 없고 그 발전의 방향도 알 수 없다. 학술 및 군사용 정보 교환이라는 최초의 목적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행위들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중략]

인터넷을 '정보 고속도로'라 부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정보의 장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누구

나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는 세상을 더욱 투명한 곳으로 만들어 불합리한 억압을 없애기도 한다. 저소득층이나 저개발국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것이 곧 그들에게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독재 국가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방의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런 견해에서 비롯된다.

풍부한 정보의 보고라는 점과 더불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터넷의 특징으로 자주 거론된다. 이전의 미디어들은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일방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정보 공급자가 될 수 있다. 개인 홈페이지는 물론, 댓글이나 토론 게시판 등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존의 모든 미디어가 인터넷에서 통합되면서 쌍방향 의사소통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마) 노르웨이의 범죄학자 매티슨은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패놉티콘이 근대 사회의 감시의 원리로 자리 잡았던 19세기 동안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할 수 있는 언론과 통신 기술이 발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발달을 시놉티콘이라고 명명했다. 패놉티콘과 달리 시놉티콘은 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 서로를 보는 메커니즘이었다. 19세기 이후에 사회의 패놉티콘화가 진행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대중과 권력이 서로를 감시하는 시놉티콘도 발달했다는 것이다. 매티슨은 패놉티콘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인 역감시의 존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바로 여기에 푸코의 역사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중요한 기제임이 분명하지만 이에는 한계가 있다. 의회와 언론이 비대해지면서 이것이 원래 취지와는 다른 그 자체의 독자적인 논리를 획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권력화했다는 점이 그렇다. 권력을 행사하여 재산 모으기를 일삼는 의원,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당략에 의해 좌우되는 입법 과정은 국회가 선거철에만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척할 뿐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말초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 경쟁에 여념이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특정 정당과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신문에 대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텔레비전을 끄거나 신문 구독을 중단하는 일밖에 없다. 게다가 정치인이나 사회의 권력자는 언론을 장악하거나 이를 잘 이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다. 물론 의회와 언론이 아직 역감시를 수행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관들은 이제 그 자체가 역감시의 대상이 된 것이다.

(바)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인들이 각종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의 양이 많아져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에 쉽게 의존하거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특정 정보에만 집착하게 될 수 있다. 지금도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많은 정보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될까?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효율 저하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또 양적 증대에 비해 정보의 질은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는 현실은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한편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는 계층이나 기업은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며,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정보의 증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를 '정보 격차'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컴퓨터 조작에 서투른 중년층 직장인이 컴퓨터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을 느껴 결국 출근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정보 격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 격차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인종, 기업과 국가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없애려는 노력은 정부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차원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 통신 기술은 컴퓨터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두뇌와 신경'을 비약적으로 확장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양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관계와 사고방식,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불러올 위험성도 있다.

(사) 우리 시대 이전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침해가 표면적이었으며, 자연의 확고한 균형 상태를 파괴하기에는 미약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 기술은 무한한 진보를 거쳐 자연을 파괴하였으며,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학 기술이라는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불행을 끼치지 않도록 통제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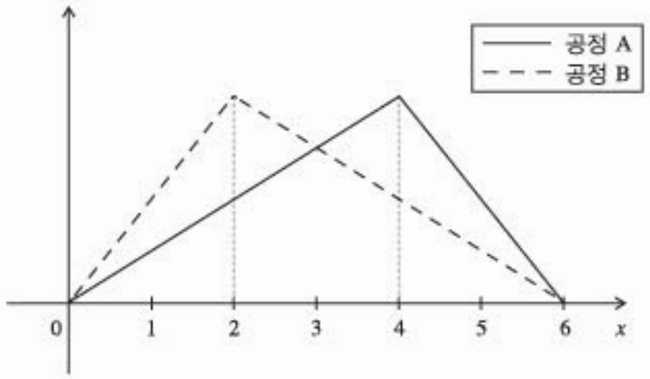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미리 예견된 인간의 왜곡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보존해야 할 인간의 개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래에 닥쳐올 공포와 재난을 미리 발견하여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려움과 경외감을 포함하는 책임감이 행위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먼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앙이나 참사를 미리 염려해 우리 스스로 막강한 권력을 제어해야 한다. 미래의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문제 1] 기술 사용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견해를 비판해 보고,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견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어느 공장에서 자동화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품 한 개의 무게를 X(단위: g)라고 할 때, 연속확률변수 X가 가지는 값의 범위가 $0 < x \leq 6$이다. 만약 $x \leq 1$ 또는 $x \geq 4$이면 불량품으로 판정되고, 처리 비용이 발생된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자동화 공정 A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동화 공정 B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두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한 개의 무게 X의 확률밀도함수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또한 공정 A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의 처리 비용은 한 개당 4000원이다. 제품 1000개를 생산하려고 할 때, 새로운 공정 B의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의 기댓값이 공정 A의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의 기댓값 이하이면 공정 B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때 새로운 공정 B를 도입할 수 있는 불량품 한 개의 처리 비용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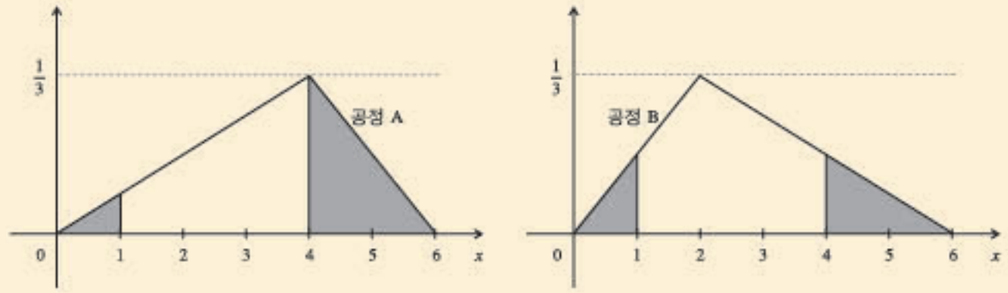
나. 예시 답안 및 해설

[문제 1]과 **[문제 2]**는 '2020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과 동일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것

[문제 3] 예시 답안

- 연속확률변수의 확률밀도함수와 x축 사이의 면적은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확률밀도함수 그래프의 높이는 $\frac{1}{3}$이 된다. 이때 공정 A와 B에서 불량품이 발생할 확률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각각 계산할 수 있다.

$p_A = \frac{3}{8}$, $p_B = \frac{1}{4}$



- 공정 A에서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Y_A라고 하면 Y_A는 이항분포 $B(1000, \frac{3}{8})$을 따르고,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은 $4000Y_A$가 된다. 이때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E[4000Y_A] = 4000E[Y_A] = 4000 \times 1000 \times \frac{3}{8}$

- 공정 B에서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Y_B라고 하면 Y_B는 이항분포 $B(1000, \frac{1}{4})$을 따르고, 불량품 한 개의 처리 비용이 C_B일 때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은 C_BY_B가 된다. 이때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E[C_BY_B] = C_BE[Y_B] = C_B1000 \times \frac{1}{4}$

- 공정 B의 불량품 처리 비용의 기댓값이 공정 A의 불량품 처리 비용의 기댓값 이하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되어야 한다.

$C_B1000 \times \frac{1}{4} \leq 4000 \times 1000 \times \frac{3}{8}$

$\Rightarrow C_B \leq 6000$

- 새로운 공정 B를 도입할 수 있는 불량품 한 개의 처리 비용의 최댓값은 6000원이다.

1) 문제 출제 의도

- 본 문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확률적 사건을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확률변수의 분포를 유도하는 것을 요구한다.
- 주어진 그래프를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상황에 맞는 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어진 확률을 토대로 이항분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르는 기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한다.

2) 문제 풀이 단계

❶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잘 이해하여 높이를 올바르게 계산한다.
❷ 두 공정 A, B에서의 불량품이 발생할 확률을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올바르게 계산한다.
❸ 두 공정 A, B에서 각각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불량품의 개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이해한다.
❹ 두 공정 A, B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의 기댓값을 이항분포의 성질을 이용하여 올바르게 계산한다.
❺ 두 기댓값을 올바르게 비교하여 최댓값을 계산한다.

다. 채점 기준

[문제 1]과 [문제 2]는 '2020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과동일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것

[문제 3] 채점 기준

-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높이를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4점
- 공정 A에서의 불량품의 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3점
- 공정 B에서의 불량품의 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3점
- 공정 A에서의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의 기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4점
- 공정 B에서의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의 기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4점
- 4, 5번에서의 값을 비교하여 최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2점

라. 제시문 출전

- 「III-1-4 정규분포」 정상권 외 7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6, 140-148쪽
- 「IV-1-4 정규분포와 그 성질」, 이준열 외 9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육, 2016, 153-162쪽.
- 「III-1-3 정규분포」, 신항균 외 11인, 『확률과 통계』, 지학사, 2016, 119-130쪽.
- 「III-1-3 연속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김창동 외 14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16, 132-134쪽.
- 「III-1-3 이항분포」, 정상권 외 7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6, 134-139쪽.
- 「IV-1-3 이항분포와 그 성질」, 이준열 외 9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육, 2016, 147-152쪽.
- 「III-1-2 이항분포」, 신항균 외 11인, 『확률과 통계』, 지학사, 2016, 113-118쪽.
- 「III-1-2 이항분포」, 김창동 외 14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16, 125-130쪽.

3. 2019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가.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외손자가 요새 한창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다. 요전에는 마루에서 뛰다가 의자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 울상을 하고 나에게 와서는 얼굴을 들이대면서 "약, 약." 한다. 무릎이 까졌을 때 약을 발라 준 생각이 나나 보다. 나는 부딪힌 자리를 쓱쓱 비벼만 주고 약은 안 발라도 되겠다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물러가지 않고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데 이번엔 '약' 소리 대신 입을 오므리고 "호오, 호오." 하는 것이었다.

다치거나 물것에서 물린 자리에 약을 발라 줄 때마다 "호오, 호오."하면서 상처에 입김을 불어 줬었는데 그것이라도 해 달라는 것 같았다. 나는 웃으며 녀석의 얼굴을 끌어당겨 이마에 정성껏 "호오."를 해주었다. 녀석은 눈까지 스르르 감으면서 그렇게 마음 놓이고 느긋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었다. 나도 웃음이 절로 났다. 나의 어릴 적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꽤 클 때까지도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입김에 의지했던 것 같다.

"호오, 호오." 어린 마음에 할머니나 어머니의 입김이 와 닿기는 비단 다쳐서 아파할 때만이 아니었다. 화롯불에 파묻어 말랑말랑 익힌 감자나 밤을 꺼내 껍질을 벗겨 주시면서도 "호오, 호오." 입김을 불어 알맞게 식혀 주셨고, 끓는 국이나 찌개도 그렇게 식혀 주셨다. 먹고 싶은 걸 참느라 침을 꼴깍 삼키며 그분들의 입을 쳐다보면서도 어린 마음속엔 그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싹텄었다.

어찌 상처나 뜨거운 먹을 것에만 그분들의 입김이 서렸을까? 그분들의 입김은 온 집안에 서렸었다. 입김이란 곧 살아 있는 표시인 숨결이고 사랑이 아닐까?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심심해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입김 속에서, 즉 사랑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평화가 아닐는지.

(나) 운이 열한 살이 되던 해였다.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엘 갔다가 시들해서 돌아온 운을 보고 허 노인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세상에는 줄광대가 밟을 만한 땅이 흔찮을 게 당연하지.

그러고는 운에게 줄타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땅바닥에 직선을 그어 놓고 그 선에서 발이 벗어나지 않게 왕래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꼬박 5년의 세월이 걸렸다. 운은 열여섯 살이 되었다. 그때 이미 그는 언뜻 보기에 허 노인과 다름없이 줄을 탔다.

그러나 허 노인은 운을 사람들 앞에서 줄 위로 오르게 하려는 눈치가 안 보였다. 하지만 운은 그 허 노인에게 섣불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운은 허 노인을 무서워했다. 허 노인은 운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나면 언제나 뒷마당에서 회초리를 들고 운의 줄타기 연습만을 계속했다.

참다못한 운이 어느 날 아버지 허 노인에게 속마음을 털었다.

—아버지 저도 이젠 사람들 앞에서 줄을 타으면 합니다.

그때 허 노인은 얼굴색이 조금 변했으나 온화하게 물었다.

—그래, ……그럼 줄을 탈 때 끝이 가까워 보이느냐?

—네,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는 줄이 넓게 보이겠구나…….

—그 위에서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허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되겠다!

운은 까닭을 몰랐으나 더 대꾸하지 못했다. 열여덟 살이 되었다. 운은 허 노인에게 다시 같은 청을 드렸다.

—어머님 줄이 넓어 보이느냐?

—줄이 보이질 않습니다.

운은 불안했으나 사실대로 말했다.

—그래, 줄을 타고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단 말이냐?

—예.

—귀도 들리지 않고.

—예.

그것도 사실대로 말했다.

—흠, 아직도 객기가 있어…….

1년쯤 지났을 때였다. 그날 주막에서 허 노인은 운에게 술잔을 따라 주고, 그날 밤으로 운을 줄로 오르라고 했다.

—줄 끝이 멀리 보여서는 더욱 안 되지만, 가깝고 넓어 보여서도 안 되는 법이다. 그 줄이라는 것이 눈에서 아주 사라져 버리고, 줄에만 올라서면 거기만의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하는 게야. 제일 위험한 것은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줄에서는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다.

노인은 조용조용 당부했다. 그 한 마디 한 마디는 마치 노인의 일생을 몇 개로 잘라서 압축해 놓은 듯한 무게와 힘과,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자기의 전 생애를 운에게 떠넘겨 주려는 듯한 안간힘이 거기 있는 것 같았다.

(다) 대길: 저 앞의 논이랑 밭은 싹 갈아엎어서 주차장을 만들면, 밤이면 밤마다 불을 켠 승용차들이 줄나배비를 서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와, 차 엔진 소리! 우와, 돈 굴러 들어오는 소리……

김덕보: 그만들 하지 못혀! 내가 내 집 짓고 살겠다는데 왜 네들이 이래라저래라 난리여?

대붕: 아버지! 대길이가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 얘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대길이 너! 도대체 언제 철들래? 언제 사람 구실 할 거냐고!

대길: 아버지 재산 정리해서 자기 앗속 차리는 사람은 제구실하는 겁니까?

메느리: 도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대길: 형수도 그러는 게 아니지. 형님 뒤에서 부추기는 거 모를 줄 아십니까?

김덕보, 한쪽에서 착잡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망치를 들고 집을 부수려 한다.

자식들 깜짝 놀라 말린다.

대길: 아? 아버지! 왜 이러세요?

메느리: 아버님, 그만두세요!

김덕보: (집을 부수려 하며) 네들 눈에는 집이 집으로 안 보이는 모양이다. 왜 사람이 살겠다고 짓는 집을 돈으로 보냔 말여. 짐구석 말아먹는 집 따윈 지어서 뭐해?

굿거리장단이 잔잔하게 깔리는 가운데, 사람들 상량식 준비를 한다.

김덕보: 그동안 고생들 많았네. 이제 벽치고 마루 까는 일만 남았으니 이번 공사의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겨.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은 다 알지?

최 씨: 그람유, 대들보 올리는 상량식 날 아뉴.

김덕보: (자식들을 보며) 네들은?

대붕: 상량식 날이고…….

김덕보: 그리구?

대길: (머뭇거리다가) 그야……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발표하기로 하신 날이죠.

김덕보: 그게 다냐? (입을 다문다.)

이씨: 성님! 뭐 그리 뜸을 들이슈? 답답허게.

김덕보: 사람들 다 모아 놓고 집안일을 거론해서 안됐지만, 오늘이 저 애들 에미……기일일세.

김덕보는 아무 말없이 보자기에 싸 온 것을 푼다. 분패를 꺼내 소중하게 한 번 쓰다듬고 집에 간다.

메느리: 박점례? 박점례가 누구야? 이름도 참…….

대붕: 조용히 해, 어머니 성함이셔.

김덕보: (분패를 어루만지며) 이 사람 살아 있었으면 올해가 환갑이여. 서른에 세상을 뜽졌으니, 꼭 살았던 만큼 죽은 시절을 보냈구만. (회환에 잠겨) 참 모질게도 추운 날이었지. 당장 집세를 못 내면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다기에 여기 저기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돈을 구하러 다니다 집에 가 보니, 불을 막 넘긴 대길이 놈을 꼭 끌어안고 대문 앞에서 쭈그려 앉어 있더라구. 일으켜 세우려고 해두 꽁꽁 얼어붙은 몸뚱이가 펴지지가 않어. 그날 밤 그 사람 몸을 녹이느라 밤새 주무르고 문지르면서 내 약속을 했지. "집부터 사자, 못 입어서 그지 소리 듣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두 집부터 사자." 그런데 그날부터 영 운신을 못하더니 그대로 저세상으로 가 버리더구만……. 대붕 엄마! 이제 환갑 되는 해, 당신 제사상에 집 한 채 올리네. 흔령이라두 편히 살어.

대붕: 아버지……죄송합니다.

대길: 아버지…….

김덕보: 집이 대관절 뭔가. 비바람 피하고, 세상사에 시달린 육신 편히 쉬라는 곳 아닌가 말여. 언제부터 집이 돈으로 둔갑을 해서 사람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이 집은 이 나무가 다 썩어 무너져 내려서 흙으로 다시 없어질 때까지 네들 에미 집이다.

(라)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고원 지대를 여행하던 주인공은 폐허가 된 마을에 도착한다. 그는 한 양치기 노인을 만나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는다. 이 양치기의 이름은 엘자아 부피에. 그날 밤 주인공은 엘지아가 도토리를 세는 것을 보게 된다. 양치기 노인은 100개를 세었을 때 셈을 멈춘다. 엘자아는 나무가 부족하여 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토리를 골라내 황폐한 고원에 홀로 심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제1차 세계 대전 후 주인공이 황무지를 다시 찾아 왔을 때, 처음 파종한 나무는 10년생의 키 큰 나무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나무가 자라 만들어진 작은 숲과 물이 흐르게 된 시내, 그리고 나무를 갉아먹는 양 대신 벌을 키우고 있는 엘자아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 뒤 해마다 노인을 찾아가는 주인공은 풍요로운 숲과 풍부한 수자원 속에서 평화로운 마음이 된 고원 지대의 변화를 보며 한 인간의 숭고한 정신과 마주치게 된다.

(마) 노인 인구의 증가로 사회 풍조도 많이 바뀌었다. 경로 우대 사상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세대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노인당' 후보가 국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지방의회는 과반수를 장악했다. 설령 노인당 후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노인들을 위한 공약이 없으면 당선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反)노인'을 구호로 내건 '재벽 청년당'이 등장했다. 이들은 90세 이상 노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30대 이하 젊은층의 비례 대표 할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바) 고령 사회는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축복이다. 단, 준비하는 사회에 축복이 있다. '노인이 오래 일하면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편견이 있다. 절대 아니다. 1980년대 유럽은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 장년층의 조기 퇴직을 방관했다. 노인이 떠나면 청년이 채울 줄 알았다. 결과는 반대였다. 노인의 경험은 청년의 혈기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일자리만 줄어 경기 침체를 낳았다. 노년의 일자리가 줄어드니 청년의 일자리도 줄었다. 유럽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요즘 유럽에서는 '일사 시 나이를 묻지 마.' 운동, '정년퇴직을 퇴장시키자.' 운동이 한창이다. 유럽연합은 2000년, 고령자와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보건 산업 진흥원의 보고서를 보면 2010년 33조 원인 고령화 산업 규모가 2020년에는 1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시장 규모가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금융 산업이고, 그중 개인연금, 퇴직 연금 분야가 유망하다고 보았다. 또한, 건강 기능 식품 산업과 방문 요양 서비스, 건강 검진 서비스, 질병 상담 및 관리 서비스 등 요양 산업이 유망하다고 발표되었다. 이 외에도 의약품 분야와 의료용 기기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사) "노년은 우리를 활동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했던가. 어떤 활동을 이르는 말인가? 그것은 아마도 젊음과 체력이 필요한 활동이 아닐까? 그렇다면 몸은 비록 허약하지만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노년의 활동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퀸투스 막시무스와 내 아들의 장인이자 자네 부친으로, 탁월한 인물이었던 루키우스 파울루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리고 파브리키우스와 쿠리우스와 코룬카니우스 같은 다른 노인들도 조언과 권위로 나라를 수호했는데, 이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므로 노년에는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셈이네. 그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더러는 돛대에 오르고 더러는 배안의 통로를 돌아다니고 또 더러는 용골에 괸 더러운 물을 퍼내는데, 키잡이는 고물에 가만히 앉아 키를 잡고 있다고 해서 항해하는 데 그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과도 같네. 젊은 선원들이 하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키잡이가 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네. 큰일은 체력이나 민첩성이나 신체의 기민성이 아니라, 계획과 명망과 판단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네. 그리고 이러한 자질들은 노년이 되면 대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다네. 나는 병사로서, 연대장으로서, 장군으로서, 사령관으로서 온갖 전쟁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으니 자네들에게는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테지. 하지만 지금도 나는 어떤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원로원에 조언해 주고 있다네.

(아) 노파의 집을 찾아냈을 때, 라스콜니코프는 그녀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본 순간부터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 그는 두 장의 지폐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싸구려 술집에 들렀다. 그는 차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곧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바로 옆에 나란히 놓인 다른 탁자에는 그가 전혀 본 적이 없는 대학생과 젊은 장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뜻밖에도 대학생이 장교에게 그 14등 문관의 과부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알료나 이바노브나의 얘기를 하며 주소를 가르쳐 주는 소리를 들었다. 벌써 이런 일 하나부터가 라스콜니코프에게는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방금 거기서 나왔는데, 여기서도 노파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듣다니, 물론 우연에 불과했다. 대학생은 갑자기 친구에게 이 알료나 이바노브나에 대한 여러 가지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노파한테서는 언제든지 돈을 꿀 수가 있어. 유대인 못지않은 부자라서 단번에 5천 루블도 내줄 수 있는 여자야. 그런데도 1루블짜리 전당물조차 마다하지 않거든. 우리 친구들도 그 노파를 자주 찾아가고 있어. 그런데 무서울 정도로 인색한 여자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사악하고 변덕스러운지 말하기 시작했다. 단 하루라도 기한을 어기면 물건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물건값의 4분의 1밖에 안 빌려 주고, 이자는 한 달에 5부에서 7부까지 받는다는 말이었다. 대학생은 한참 지껄인 끝에 그 밖에도 노파에게는 리자베타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렇게 왜소하고 추한 노파가 적어도 8베르쇼크나 되는 동생을 늘 때리며 어린애 다루듯 완전히 노예처럼 부린다는 얘기도 했다……. 리자베타는 노파의 배다른 동생으로 벌써 서른다섯 살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녀의 집에서 언니를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며 요리와 세탁을 도맡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그녀는 부업으로 옷을 지어 팔기도 하고 마루를 닦는 삯일도 했는데, 일을 해서 받은 돈은 그나마 언니에게 모두 주고 있다는 얘기였다.

(자) 고추밭을 걷어 내다가
그늘에서 늙은 호박 하나를 발견했다
뜻밖의 수확을 들어 올리는데
흙 속에 처박힌 달디단 그녀의 젖을
온갖 벌레들이 오글오글 빨고 있는 게 아닌가
*소신공양(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침 또는 그런 일)을 위해
타닥타닥 타고 있는 불꽃 같기도 했다
그 은밀한 의식을 훔쳐보다가
나는 말라 가는 고춧대를 덮어 주고 돌아왔다

가을갈이를 하려고 밭에 다시 가 보니
호박은 온데간데없다
불꽃도 흙 속에 잦아든 지 오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녀는 젖을 다 비우고
잘 마른 종잇장처럼 땅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의 죽음을 덮고 있는
관 뚜껑을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한 움큼 남아 있는 둥근 *사리들!(참된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구슬 모양 유골)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젊은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주장을 제시문 (라)와 (바)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해 보고, 노인의 고용을 확대하자는 제시문 (바)의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식을 제시문 (사)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와 제시문 (자)에 나타난 노파와 호박의 삶의 방식을 대조하여 호박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를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나. 예시 답안 및 해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젊은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KEYPOINT

- 문제에서 주어진 핵심어를 통해 제시문 읽기
- 각 제시문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논지가 직간접적으로 표현된 핵심 어구 파악하기
- 파악한 핵심 어구들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요약하기
- 각 제시문의 차이점을 종합하여 창의적인 결론 도출하기

1) 예시 답안

제시문 (가)~(라)는 노인이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를 전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가)의 할머니에게 내재된 가치는 가족 간의 평화와 신뢰감 형성을 위한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입김으로 상징되는 따뜻하고 정서적인 교감이다. (나)의 하노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장인정신에 기반한 줄타기 경지이다. 이를 전수하기 위해 육체적인 훈련과 줄타기의 정수를 깨닫도록 유도하는 문답법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다)의 김덕보 영감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집의 비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를 전달하기 위한 방식은 자식들이 자신의 의중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우회적인 질문과 결정적인 순간 본심을 드러내는 직설적인 표출이다. (라)의 양치기 노인의 행동이 갖는 가치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배려이다. 이를 공감하도록 하는 방식은 공동체 의식에 기반하여 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간 사랑, 예술의 최고 경지, 정신적 가치, 생태 개선 등 노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하고, 그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도 교감과 공감, 훈련과 가르침, 우회와 직설, 노력과 실천 등 다양하다. (570자)

2) 해설

수험생들은 제시문을 독해하기 전에 먼저 주어진 문제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험생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젊은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이란 표현에서 네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노인과 젊은 세대의 상호 관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즉 '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가치가 후세대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네 제시문의 논지가 구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파악된 출제 의도를 염두에 두고 각각의 제시문에서 가치와 전달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단어, 문장, 문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와 그것이 후세대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각각의 제시문에서 예시와 사례에 대한 설명, 등장 인물들의 대사,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상징 등을 통해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제시문 (가)의 경우를 보면, "입김이란 곧 살아 있는 표시인 숨결이고 사랑이 아닐까?" 혹은 "사랑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평화가 아닐는지."와 같은 표현에서 할머니가 추구했던 가족 간의 평화와 신뢰감 형성을 위한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이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상처에 "호오, 호오" 입김을 불어 넣어 주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이러한 삶의 가치가 따뜻하고 정서적인 교감의 방식으로 후세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제시문 (라)의 경우를 보면, "그는 양치기 노인을 만나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는다."와 "엘리아는 나무가 부족하여 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와 같은 문장에서 노인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황폐한 고원에 홀로 나무를 심고 있었다."와 "풍요로운 숲과 풍부한 수자원 속에서 평화로운 마을이 된 고원지대의 변화"와 같은 표현에서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가치가 후세대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제시문에서 파악한 '가치와 전달 방식'을 서론, 본론, 결론 형식에 부합되게 자신의 문장으로 논리적으로 기술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서론은 "제시문 (가)~(라)는 노인이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를 전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와 같이 짧고 명확하게 기술하면 충분하다. 본론을 작성할 때에는 네 제시문에서 찾은 가치와 전달 방식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작업할 것을 권장한다. 특정한 가치와 방식을 너무 길게, 혹은 반대로 너무 짧게 기술하지 않도록 글을 쓰기 전에 본론의 전체 틀을 구상해야 한다. 한편 결론은 논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서론과 유사하게 쓰기보다는 네 제시문에서 발견한 가치와 전달 방식이 무엇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차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결론 쓰기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덕목은 본론에서 기술한 내용을 유사한 다른 개념어로 압축해 표현하는 능력이다. 예컨대 다음처럼 가치와 방식을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 간 사랑 예술의 최고 경지, 정신적 가치, 생태 개선 등 노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하고, 그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도 교감과 공감, 훈련과 가르침, 우회와 직설, 노력과 실천 등 다양하다."

[문제 2] 제시문 (마)의 주장을 제시문 (라)와 (바)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해 보고, 노인의 고용을 확대하자는 제시문 (바)의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식을 제시문 (사)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KEYPOINT

- 비판 대상이 되는 제시문과 비판 기준이 되는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 비판 근거가 되는 제시문의 논지를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기
- 근거가 되는 제시문의 논지를 토대로 대안 제시하기
- 두 개의 세부 문제를 고려하여 답안의 분량을 적절히 배분하기

1) 예시 답안

제시문 (마)의 새벽 청년당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장됨에 따라 청년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인과 젊은 세대가 경쟁적이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된다는 이 주장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후세대를 위해 노인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라)의 사례와 노인 고용이 젊은 세대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수 있다는 (바)의 논지에 입각해 보면 두 세대가 조화롭게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판 받을 수 있다. 제시문 (바)는 노인의 일자리를 청년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운동이 성공하려면, 제시문 (사)에서 주장한 것처럼 노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경륜, 전문지식, 조망 능력,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체력은 젊은이에게 뒤처질 수 있으나 사회에서 '키잡이'와 조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고령화 사회에도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며 그 역할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563자)

2) 해설

[문제 2]는 두 개의 세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세부 문제는 제시문 (라)와 (바)의 논지를 통합한 후 이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비판 대상이 되는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요약하여 서술해야 한다. (마)는 그 논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시문으로, 세대 간 갈등,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노인, 젊은이들의 반발, 노인들의 참정권 제한, 젊은 층의 비례 대표 할당제 도입 등의 핵심 어구를 활용하여,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청년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진다'는 논지를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라)와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를 비판해야 하는데,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두 제시문 간의 연결고리를 통해 하나의 논지로 묶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두 제시문 간의 공통된 연결고리는 노인과 관련된 긍정적 측면이다. (라)에서는 노인의 나무 심는 행위가 미래 세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며, (바)에서는 노인 인구의 증가가 직업 창출과 경제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노인과 젊은 세대의 조화로운 상호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차원이 다른 층위에서 기술된 두 논지를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세부 문제는 (사)에 근거하여 노인의 고용을 확대하자는 (바)의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인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미 '노인 고용 확대'라는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를 다시 읽을 필요는 없으며 (사)의 논지를 꼼꼼히 살펴보는데 집중해야 한다. (사)는 노인들이 경험을 통해 갖추게 된 능력과 키잡이로서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에 근거하여 노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 판단력, 통찰력, 조망 능력 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갖춘 노인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자로서, 나아가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키잡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서술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문제 3] 제시문 (아)와 제시문 (자)에 나타난 노파와 호박의 삶의 방식을 대조하여 호박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를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KEYPOINT

- 문제가 요구하는 대조의 대상을 제시문에서 파악하기
- 두 대상을 대조하면서 특정 대상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추론하기

1) 예시 답안

(아)의 노파와 (자)의 늙은 호박의 삶의 방식은 대조를 이룬다.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저당 잡는 이기적인 고리대금업자인 노파는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부를 축적하며 자신의 혈육인 여동생을 착취하고 핍박하며 노예처럼 취급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벌레들에게 자신의 양분을 모두 주는 늙은 호박은 다른 생명체를 위해 소신공양을 실천하고, 죽음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흙 속으로 스며듦으로써 다른 생명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늙은 호박은, 자기중심적이고 몰인정하며 인색한 노파의 삶과는 반대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함으로써 다른 생명체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고,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에 자양분이 된다는 점에서 이타적이고 인류애적인 숭고한 의미가 있다. (408자)

2) 해설

[문제 3]은 노파와 호박의 삶의 방식을 대조하여 호박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를 유추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두 삶의 방식을 대조해야 하므로 각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서술한 다음, 노파의 삶과 대비되는 호박의 삶의 방식이 갖는 의미를 유추하여 서술해야 한다. 노파의 삶의 방식은 "고리대금업자", "무서울 정도로 인색한 여자", "얼마나 사악하고 변덕스러운지", "단 하루라도 기한을 어기면 물건이 사라진다", "동생을 노예처럼 부린다" 등과 같은 표현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늙은 호박의 삶의 방식은 "벌레들이 오글오글 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신공양을 위해", "타고 있는 불꽃", "그녀는 젖을 다 비우고", "엎드려 있는", "스스로의 죽음" 등과 같은 표현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를 그대로 나열하여 서술하기보다는 노파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이를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간결하게 서술해야 한다. 예컨대, 호박의 삶의 방식을 표현할 때 "벌레들에게 자신의 양분을 주는 늙은 호박"은 구체적인 표현이며, "소신공양", "다른 생명을 위한 밑거름"은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간결하게 서술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각 삶의 방식을 대조적으로 서술했다면, 그 다음에는 노파의 삶의 방식과 대조되는 늙은 호박의 삶이 갖는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노파의 삶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라면, 늙은 호박의 삶은 자기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이다. 이러한 숭고한 삶이 갖는 의미를 (자)의 시를 통해 "다른 생명체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고,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에 자양분이 된다는 인류애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유추해 낼 수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문단의 구성은, 주어진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의 순서에 따라, 노파의 삶의 방식, 호박의 삶의 방식, 노파의 삶의 방식과 대비되는 호박의 삶의 의미 순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 부분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분량도 삼분의 일 정도로 생각하되, 가장 핵심이 되는 호박의 삶의 의미를 충분히 서술하도록 답안 분량을 안배하길 권장한다.

다. 채점 기준

[문제 1] 채점 기준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❶ 각 제시문에서 나타난 노인의 가치와 이를 전달하는 방식을 찾아 제시 (32점)		
	❷ 논리적 구성 (3점)과 결론 제시 (5점)		

[문제 2] 채점 기준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❶ 제시문 (라)와 (바)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제시문 (마)의 주장을 비판했는지 평가 (20점)		
	❷ 제시문 (사)에서 노인의 역할을 파악하여 제시문 (바) 주장의 근거로 설명했는지 평가 (20점)		

[문제 3] 채점 기준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❶ 제시문 (사)와 (아)에서 노파와 늙은 호박의 삶의 방식의 차이를 파악 (12점)		
	❷ (자)의 늙은 호박의 삶의 긍정적 의미를 찾아서 제시 (8점)		

라. 제시문 출전

- 제시문 (가): 박완서, 「사랑의 입김」, 이승원 외 8인 공저, 『국어 I』, 좋은책 신사고, 2014, 19~21쪽.
- 제시문 (나): 이청준, 「줄」, 권영민 외 11인 공저, 『문학』, 지학사, 2014, 358~365쪽.
- 제시문 (다): 김인경, 「집」, 조헌설 외 30명 공저, 『국어 I』, 해냄에듀, 2014, 226~239쪽.
- 제시문 (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정창우 외 11인 공저, 『생활과 윤리』, 미래엔, 2014, 146쪽.
- 제시문 (마): 「2040년 한국」, 박영목 외 4인 공저, 『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2013, 186~188쪽.
- 제시문 (바): 「고령 사회는 축복이다」, 신동흔 외 15인 공저, 『국어Ⅱ』, 동아출판, 2014, 122쪽
  이동환 외 6인 공저, 『사회』, 천재교육, 2014, 101쪽
- 제시문 (사): 키케로, 「노년에 관하여」, 정민 외 14인 공저, 『고전』, 해냄에듀, 2013, 123~131쪽.
- 제시문 (아):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 김종철 외 4인 공저, 『고전』, 천재교육, 2013, 262~267쪽
- 제시문 (자): 나희덕, 「어떤 출토」, 조헌설 외 30인 공저, 『국어Ⅱ』, 해냄에듀, 2013, 37쪽.

4. 2019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가.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외손자가 요새 한창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다. 요전에는 마루에서 뛰다가 의자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 울상을 하고 나에게 와서는 얼굴을 들이대면서 "약, 약." 한다. 부딪힌 자리를 쓱쓱 비벼만 주고 약은 안 발라도 되겠다고 일러 주었다. 그러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물러가지 않고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데 이번엔 '약' 소리 대신 입을 오므리고 "호오, 호오." 하는 것이었다.

다치거나 물것에서 물린 자리에 약을 발라 줄 때마다 "호오, 호오."하면서 상처에 입김을 불어 줬었는데 그것이라도 해 달라는 것 같았다. 나는 웃으며 녀석의 얼굴을 끌어당겨 이마에 정성껏 "호오."를 해주었다. 녀석은 눈까지 스르르 감으면서 그렇게 마음 놓이고 느긋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었다. 나도 웃음이 절로 났다. 나의 어릴 적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꽤 클 때까지도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입김에 의지했던 것 같다.

"호오, 호오." 어린 마음에 할머니나 어머니의 입김이 와 닿기는 비단 다쳐서 아파할 때만이 아니었다. 화롯불에 과묻어 말랑말랑 익힌 감자나 밤을 꺼내 껍질을 벗겨 주시면서도 "호오, 호오." 입김을 불어 알맞게 식혀 주셨고, 끓는 국이나 찌개도 그렇게 식혀 주셨다. 먹고 싶은 걸 참느라 침을 꼴깍 삼키며 그분들의 입을 쳐다보면서도 어린 마음속엔 그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싹텄었다.

어찌 상처나 뜨거운 먹을 것에만 그분들의 입김이 서렸을까? 그분들의 입김은 온 잠안에 서렸었다. 입김이란 곧 살아 있는 표시인 숨결이고 사랑이 아닐까?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심심해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입김 속에서, 즉 사랑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평화가 아닐는지.

(나) 운이 열한 살이 되던 해였다.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엘 갔다가 시들해서 돌아온 운을 보고 허 노인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세상에는 줄광대가 밟을 만한 땅이 흔찮을 게 당연하지.

그러고는 운에게 줄타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땅바닥에 직선을 그어 놓고 그 선에서 발이 벗어나지 않게 왕래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꼬박 5년의 세월이 걸렸다. 운은 열여섯 살이 되었다. 그때 이미 그는 언뜻 보기에 허 노인과 다름없이 줄을 탔다.

그러나 허 노인은 운을 사람들 앞에서 줄 위로 오르게 하려는 눈치가 안 보였다. 하지만 운은 그 허 노인에게 섣불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운은 허 노인을 무서워했다. 허 노인은 운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나면 언제나 뒷마당에서 회초리를 들고 운의 줄타기 연습만을 계속했다.

참다못한 운이 어느 날 아버지 허 노인에게 속마음을 털다.

—아버지 저도 이젠 사람들 앞에서 줄을 탔으면 합니다.

그때 허 노인은 얼굴색이 조금 변했으나 온화하게 물었다.

—그래, ……그럼 줄을 탈 때 끝이 가까워 보이느냐?

—네,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는 줄이 넓게 보이겠구나…….

—그 위에서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허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되겠다!

운은 까닭을 몰랐으나 더 대꾸하지 못했다. 열여덟 살이 되었다. 운은 허 노인에게 다시 같은 청을 드렸다.

—어머니 줄이 넓어 보이느냐?

—줄이 보이질 않습니다.

운은 불안했으나 사실대로 말했다.

—그래, 줄을 타고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단 말이냐?

—예.

—귀도 들리지 않고.

—예.

그것도 사실대로 말했다.

—흠, 아직도 객기가 있어…….

1년쯤 지났을 때였다. 그날 주막에서 허 노인은 운에게 술잔을 따라 주고, 그날 밤으로 운을 줄로 오르라고 했다.

—줄 끝이 멀리 보여서는 더욱 안 되지만, 가깝고 넓어 보여서도 안 되는 법이다. 그 줄이라는 것이 눈에서 아주 사라져 버리고, 줄에만 올라서면 거기만의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하는 게야. 제일 위험한 것은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줄에서는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다.

노인은 조용조용 당부했다. 그 한 마디 한 마디는 마치 노인의 일생을 몇 개로 잘라서 압축해 놓은 듯한 무게와 힘과,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자기의 전 생애를 운에게 떠넘겨 주려는 듯한 안간힘이 거기 있는 것 같았다.

(다) 대길: 저 앞의 논이랑 밭은 싹 갈아엎어서 주차장을 만들면, 밤이면 밤마다 불을 켠 승용차들이 줄나배비를 서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와, 차 옌진 소리! 우와, 돈 굴러 들어오는 소리……

김덕보: 그만들 하지 못혀! 내가 내 집 짓고 살겠다는데 왜 네들이 이래라저래라 난리여?

대봉: 아버지! 대길이가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 얘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대길이 너! 도대체 언제 철들래? 언제 사람 구실 할 거냐고!

대길: 아버지 재산 정리해서 자기 잇속 차리는 사람은 제구실하는 겁니까?

메느리: 도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대길: 형수도 그러는 게 아니지. 형님 뒤에서 부추기는 거 모를 줄 아십니까?

김덕보, 한쪽에서 착잡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망치를 들고 집을 부수려 한다.

자식들 깜짝 놀라 말린다.

대길: 어? 아버지! 왜 이러세요?

메느리: 아버님, 그만두세요!

김덕보: (집을 부수려 하며) 네들 눈에는 집이 집으로 안 보이는 모양이다. 왜 사람이 살겠다고 짓는 집을 돈으로 보낸 말여. 집구석 말아먹는 집 따윈 지어서 뭐해?

굿거리장단이 잔잔하게 깔리는 가운데, 사람들 상량식 준비를 한다.

김덕보: 그동안 고생들 많았네. 이제 벽치고 마루 까는 일만 남았으니 이번 공사의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겨.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은 다 알지?

최 씨: 그람유, 대들보 올리는 상량식 날 아뉴.

김덕보: (자식들을 보며) 네들은?

대붕: 상량식 날이고…….

김덕보: 그리구?

대길: (머뭇거리다가) 그야……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발표하기로 하신 날이죠.

김덕보: 그게 다냐? (입을 다문다.)

이씨: 성님! 뭐 그리 뜸을 들이슈? 답답허게.

김덕보: 사람들 다 모아 놓고 집안일을 거론해서 안됐지만, 오늘이 저 애들 에미……기일일세.

김덕보는 아무 말 없이 보자기에 싸 온 것을 푼다. 문패를 꺼내 소중하게 한 번 쓰다듬고 집에 건다.

메느리: 박점례? 박점례가 누구야? 이름도 참…….

대붕: 조용히 해, 어머니 성함이셔.

김덕보: (문패를 어루만지며) 이 사람 살아 있었으면 올해가 환갑이여. 서른에 세상을 등졌으니, 꼭 살았던 만큼 죽은 시절을 보냈구만. (회환에 잠겨) 참 모질게도 추운 날이었지. 당장 집세를 못 내면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다기에 여기 저기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돈을 구하러 다니다 집에 가 보니, 돌을 막 넘긴 대길이 놈을 꼭 끌어안고 대문 앞에서 쭈그려 앉어 있더라구. 일으켜 세우려고 해두 꽁꽁 얼어붙은 몸뚱이가 펴지지가 않어. 그날 밤 그 사람 몸을 녹이느라 밤새 주무르고 문지르면서 내 약속을 했지. "집부터 사자, 못 입어서 그지 소리 듣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두 집부터 사자." 그런데 그날부터 영 운신을 못하더니 그대로 저세상으로 가 버리더구만……. 대붕 엄마! 이제 환갑 되는 해, 당신 제사상에 집 한 채 올리네. 혼령이라두 편히 살어.

대붕: 아버지……죄송합니다.

대길: 아버자…….

김덕보: 집이 대관절 뭔가. 비바람 피하고, 세상사에 시달린 육신 편히 쉬라는 곳 아닌가 말여. 언제부터 집이 돈으로 둔갑을 해서 사람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이 집은 이 나무가 다 썩어 무너져 내려서 흙으로 다시 없어질 때까지 네들 에미 집이다.

(라)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고원 지대를 여행하던 주인공은 폐허가 된 마을에 도착한다. 그는 한 양치기 노인을 만나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는다. 이 양치기의 이름은 엘자아 부피에. 그날 밤 주인공은 엘지아가 도토리를 세는 것을 보게 된다. 양치기 노인은 100개를 세었을 때 셈을 멈춘다. 엘자아는 나무가 부족하여 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토리를 골라내 황폐한 고원에 홀로 심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제1차 세계 대전 후 주인공이 황무지를 다시 찾아왔을 때, 처음 파종한 나무는 10년생의 키 큰 나무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나무가 자라 만들어진 작은 숲과 물이 흐르게 된 사내, 그리고 나무를 갉아먹는 양 대신 벌을 키우고 있는 엘지아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 뒤 해마다 노인을 찾아가는 주인공은 풍요로운 숲과 풍부한 수자원 속에서 평화로운 마을이 된 고원 지대의 변화를 보며 한 인간의 숭고한 정신과 마주치게 된다.

(마) 노인 인구의 증가로 사회 풍조도 많이 바뀌었다. 경로 우대 사상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세대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노인당' 후보가 국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지방의회는 과반수를 장악했다. 설령 노인당 후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노인들을 위한 공약이 없으면 당선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反)노인'을 구호로 내건 '새벽 청년당'이 등장했다. 이들은 90세 이상 노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30대 이하 젊은층의 비례 대표 할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바) 고령 사회는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축복이다. 단, 준비하는 사회에 축복이 있다. '노인이 오래 일하면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편견이 있다. 절대 아니다. 1980년대 유럽은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 장년층의 조기 퇴직을 방관했다. 노인이 떠나면 청년이 채울 줄 알았다. 결과는 반대였다. 노인의 경험은 청년의 혈기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일자리만 줄어 경기 침체를 낳았다. 노년의 일자리가 줄어드니 청년의 일자리도 줄었다. 유럽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요즘 유럽에서는 '입사 시 나이를 묻지 마.' 운동, '정년퇴직을 퇴장시키자.' 운동이 한창이다. 유럽연합은 2000년, 고령자와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보건 산업 진흥원의 보고서를 보면 2010년 33조 원인 고령화 산업 규모가 2020년에는 1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시장 규모가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금융 산업이고, 그중 개인연금, 퇴직 연금 분야가 유망하다고 보았다. 또한, 건강 기능 식품 산업과 방문 요양 서비스, 건강 검진 서비스, 질병 상담 및 관리 서비스 등 요양 산업이 유망하다고 발표되었다. 이 외에도 의약품 분야와 의료용 기기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사) "노년은 우리를 활동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했던가. 어떤 활동을 이르는 말인가? 그것은 아마도 젊음과 체력이 필요한 활동이 아닐까? 그렇다면 몸은 비록 허약하지만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노년의 활동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퀸투스 막시무스와 내 아들의 장인이자 자네 부친으로, 탁월한 인물이었던 루키우스 파울루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리고 파브리키우스와 쿠리우스와 코룬카니우스 같은 다른 노인들도 조언과 권위로 나라를 수호했는데, 이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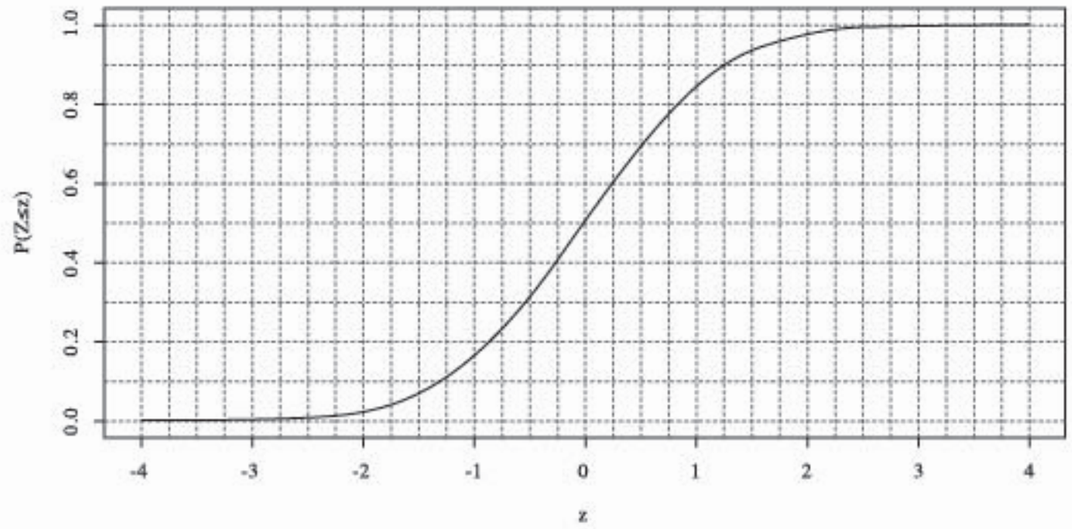
그러므로 노년에는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셈이네. 그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디러는 돛대에 오르고 디러는 배안의 통로를 돌아다니고 또 디러는 용골에 괸 디러운 물을 퍼내는데, 키잡이는 고물에 가만히

앉아 키를 잡고 있다고 해서 항해하는 데 그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과도 같네. 젊은 선원들이 하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키잡이가 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네. 큰일은 체력이나 민첩성이나 신체의 기민성이 아니라, 계획과 명망과 판단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네. 그리고 이러한 자질들은 노년이 되면 대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다네. 나는 병사로서, 연대장으로서, 장군으로서, 사령관으로서 온갖 전쟁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으니 자네들에게는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테지. 하지만 지금도 나는 어떤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원로원에 조언해 주고 있다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젊은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주장을 제시문 (라)와 (바)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해 보고, 노인의 고용을 확대하자는 제시문 (바)의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식을 제시문 (사)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어떤 나라의 현재 청년 실업률(15-29세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은 25%, 노인 실업률(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은 40%라고 한다. 이 나라의 어느 도시에서 임의로 청년 192명, 노인 600명을 선택하여 실업 현황을 조사하려고 한다. 이 도시에서는 조사 대상자 중 청년 실업자가 51명 이상일 때 청년을 위한 실업 정책 A가 시행되고, 조사 대상자 중 노인 실업자가 y명 이상일 때 노인을 위한 실업 정책 B가 시행된다. 그러나 도시의 재정적인 문제로 정책 B가 시행될 확률이 정책 A가 시행될 확률의 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다음 그래프를 이용하여 노인을 위한 정책 B가 시행될 수 있는 y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단, 다음 그래프는 표준정규분포 $N(0,1)$을 따르는 확률변수 Z가 어느 특정 값(z)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즉 $P(Z \le z)$을 나타낸다.)



나. 예시 답안 및 해설

[문제 1]과 [문제 2]는 '2019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과 동일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것

[문제 3] 예시 답안

▶ 확률변수 X를 조사 대상자 192명 중 청년 실업자 수라고 정의하면 X는 이항분포 B(192, 0.25)를 따르고, 확률변수 Y를 조사 대상자 600명 중 노인 실업자 수라고 정의하면 Y는 이항분포 B(600, 0.4)를 따르게 된다.

▶ 이때, 각 조사 대상자 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X와 Y는 근사적으로 각각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X \sim N(48, 36), \qquad Y \sim N(240, 144)$

▶ 정책 A가 시행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X \geq 51) = P(Z \geq \frac{51-48}{6}) = P(Z \geq 0.5) = 1 - P(Z \leq 0.5) = 1 - 0.7 = 0.3$$

▶ 정책 B가 시행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Y \geq y) = P(Z \geq \frac{y-240}{12}) = 1 - P(Z \leq \frac{y-240}{12}) \leq 0.3 \times 2 = 0.6$$

$$\Rightarrow P(Z \leq \frac{y-240}{12}) \geq 0.4$$

▶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frac{y-240}{12} \geq -0.25 \Rightarrow y \geq 237$$

▶ 따라서 정책 B가 시행될 수 있는 y의 최솟값은 237명이다.

1) 문제 출제 의도

- 본 문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확률적 사건을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확률변수의 분포를 유도하는 것을 요구한다.
-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로의 근사화를 이해하고 각 상황에 올바르게 적용해야 한다.
- 주어진 그래프를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상황에 맞는 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2) 문제 풀이 단계

❶ 청년 실업자의 수와 노인 실업자의 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❷ 각 이항분포가 근사적으로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올바르게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❸ 두 가지 정책 A, B가 시행되는 사건을 잘 이해하고, 각각의 시행될 확률을 계산한다. 이때,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 그래프를 해석해서 확률을 계산에 이용해야 한다.
❹ 두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올바르게 비교하여 값을 구한다.

다. 채점 기준

[문제 1]과 [문제 2]는 '2019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과 동일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것

[문제 3] 채점 기준

-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로의 근사를 올바르게 찾은 경우: +5점
- 정책 A가 시행될 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5점
- 정책 B가 시행될 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5점
- 정책 A, B를 비교하여 y의 최솟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5점

※ 각 단계에서 답이 틀려도 논리성을 고려하여 부분 점수 2-3점 부여 가능

라. 제시문 출전

- 「Ⅲ-1-3 이항분포」 정상권 외 7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6, 134-139쪽.
- 「Ⅲ-1-3 이항분포」 황선욱 외 10인, 『확률과 통계』, 좋은책 신사고, 2016, 107-112쪽.
- 「Ⅲ-1-3 이항분포」 류희찬 외 17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과서, 2016, 131-138쪽.
- 「Ⅲ-1-4 정규분포」 정상권 외 7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6, 140-149쪽.
- 「Ⅲ-1-4 정규분포」 황선욱 외 10인, 『확률과 통계』, 좋은책 신사고, 2016, 113-121쪽.
- 「Ⅲ-1-4 정규분포」 류희찬 외 17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과서, 2016, 139-147쪽.

IV.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I 063
2. 경영경제계열 073
3. 인문사회계열 II 081

IV.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I

가.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데서 오시는 길입니까?"

"흥,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회사(동척)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어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중략]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립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구경도 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디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뭔기오? 고향이 통 없어졌다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퍽 변했겠지요."

"변하고 무어고 간에 아무것도 없다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않다마."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단 말씀이오?"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즐비하게 남았다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기오?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오?"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썩어 넘어진 서까래, 뚤뚤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오?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오?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티지디마, 가슴이 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싶었다.

(나) 시골을 다녀오되 성묘가 목적이기는 근년으로 드문 일이었다. 세모(한 해가 끝날 무렵)가 되면 한두 군데서 들어오던 세찬(연말에 선사하는 물건)을 놓고 으레껀 꾸중이시던 할아버지 말씀이 자주 되살아나 마음 한 켠이 결리지 않은 바도 아니었지만, 시절이 이러매 신정 연휴를 빌미할 수밖에 없음을 달리 어쩌랴 하며 견딘 거였다. 그러나 할아버지한테 결례(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나 자신에게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아주 어려서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가문을 지킨 모든 선인 조상들의 심상은 오로지 단 한 분, 할아버지 그분의 인상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받은 사랑이며 가는 정으로야 어찌 어머니 위에 다시 있다 감히 장담할 수 있을까마는, 그럼에도 삼가 할아버지 한 분만으로 조상의 넋을 가늠하되, 당신 생전에 받은 가르침이야말로 진실로 받들고 싶도록 값지게 여겨지는 터임에, 거듭 할아버지의 존재와 추억의 조각들을 모든 것의 으뜸으로 믿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한내읍에 닿았을 때는 이미 세 시도 겨워 미끌아 해거름을 만나게 될 그런 어름이었다. 겨울비를 맞으며 고향을 찾아보기도 난생처음인데다 정 두고 떠났던 옛 산천들이 몰아보이자, 나는 설레기 시작한 가슴을 부접할 길이 없었다.

나는 한동안 두 눈을 지릅뜨고 빗발 무늬가 잦아 가던 창가에 서서, 뒷동산 부엉재를 감싸며 돌아가는 갈머리 부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들든 것과는 별도로 정말 썰렁하고 울적한 기분이었다.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이었건만, 옛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던 것이다. 옛 모습으로 남아난 것이 저토록 귀할 수 있을까.

그중에서도 맨 먼저 가슴을 후려친 것은 왕소나무가 사라져 버린 사실이었다. 분명 왕소나무가 서 있던 자리엔 와양간만한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 가게 굴뚝만이 끌불견으로 뻗질러 서 있던 것이다.

그 왕소나무 잎새에 누렁물이 들고 가지에 삭정이가 끼는 걸 보며 고향을 뜨고 십삼 년 만이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긴 했지만, 언제 베어다 켜 썼는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현장을 목격하니 오장에서 부레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사백여 년에 걸친 그 허구한 풍상을 다 부대껴 내고도 어느 솔보다 푸르던, 십장생의 으뜸다운 풍모로 마을을 지켜 온 왕소나무가 아니었던가. 내가 일곱 살 나 천자문을 떼고 획씻이도 마친 어느 여름날 해설핀 석양으로 잊지 않고 있지만, 나는 갯가 제방 둑까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온 마을을 쓸어 삼킬 듯이 쳐들어오던 바다 밀물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이젠 완전히 타락한 동네구나—. 나는 은연중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마을의 주인(왕소나무)이 세상 뜬 지 오래라니 오죽해졌으랴 싶기도 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더욱이 피서지로 한몫해 온 탓에, 해수욕장이 개장된 여름이면 밤낮 기적 소리가 잘 틈 없던 철로 가에 서서, 그 술한 소음과 매연을 마시다 지쳐, 영물의 여우도 내던지고 고사해 버린 왕소나무의 운명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가슴이 쓰리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실향민. 나는 어느덧 실향민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느낌을 덜어 버릴 수가 없었다. 고향이랬자 무덤들밖에 남겨 둔 게 없던 터라 어차피 무심하게 여겨 온 셈이긴 했지만, 막상 퇴락해 버린 고향 풍경을 대하니, 나 자신이 그토록 처연하고 헙헙(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느낌)하며 외로울 수가 없던 것이다.

(다) 우리 부모님은 이민 1세대로, 나는 백인 마을에서 자랐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또래 녀석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다. 사람들은 곧잘 물었다.

"웨어 아 유 프롬(Where are you from)?"

내 대답은 늘 똑같았다. "루이지애나, 내 고향은 루이지애나예요."

물론 그건 사람들이 예상한 답변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냐. 중국이나 일본 어디서 왔느냐는 말이지."

그 두 나라 사이에 낀 반도국을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았다.

일곱 살 때 나는 처음 한국에 가 보았다. 가방은 무거웠고 한국어도 서툴렀지만 이방인이라는 느낌은 없었다. 순진하게도 나는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믿었다.

어디를 가도 검은 머리였다. 쌍꺼풀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느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아시아인'은 없었다. 사람들은 내게 "눈이 크다"거나 "작고 말랐다"라고 말했다. 겨우 두 달 동안이었지만 한국에서 내가 받은 느낌은 몇 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느끼고 기억하게 해 주었다.

내가 다시 한국에 간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을 앞둔 여름이었다. 나는 금세 사람들이 예전만큼 내게 관대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 부모님은 화가 나서 내게 전화를 거셨다. 내가 버릇없게 굴었기 때문이다. 너무 솔직한 질문과 서양식 사고방식이 친척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나는 삼촌께 나한테 화가 나셨느냐고 여쭈었다.

삼촌은 "아니다. 너한테 화가 난 건 아니야. 단지 널 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분명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한국말로 미국 애들 생각을 말하는 건 이상한 일이니까. 넌 한국 사람이 아니란다. 우리말을 할 줄 아는 미국인이지."라고 답하셨다.

충격이었다. 미국에 있을 때처럼 한국에서도 나는 이방인이었다.

(라)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사방의 둘레)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죄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어디루 가려오?"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 살라우?" [중략]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불도저)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뭣 땜에요?"
"낸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땐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마)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오디세우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 지중해를 표류하게 된다. 고국 이타케 섬을 떠난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는데, 그는 여전히 여신 칼립소의 섬에 억류당한 상태다. 오디세우스는 신들의 도움으로 칼립소의 섬을 떠나 파이아케스 섬의 알키노오스 왕의 궁전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랑에 휩쓸리고, 괴물과 마녀를 만나는 등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잃게 된 사정을 이야기한다.

먼저 내 이름을 말씀드리겠소이다. 그대들도 내 이름을 알도록.
나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올시다! 나는 온갖 지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내 명성은 이미 하늘에 닿았소.

멀리서도 잘 보이는 이타케가 내 고향이오. 그곳에는 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소.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네리톤 말이오.
이타케는 야트막하게 그리고 서쪽으로 땐 위에 자리 잡고 있고,
이들 다른 섬들은 새벽과 태양을 향해 떨어져 있지요.
이타케는 바위투성이의 섬이지만, 젊은이들의 좋은 유모(乳母)지요.
나로서는 자기 나라보다 달콤한 것은 달리 아무것도 볼 수 없소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칼립소는 나를 남편으로
삼으려고 자신의 속이 빈 동굴들 안에 나를 붙들어 두려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아이아이에 섬의 교활한 키르케도 나를
남편으로 삼기를 열망하며, 자신의 궁전에 나를 붙들어 두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들도 내 가슴속 마음을 설득할 수는 없었소.
이렇듯 누군가가 부모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낯선 나라의 풍요한 집에서 산다 해도,
고향 땅과 부모 보다 더 달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법이라오.
자, 나는 그대에게 내가 트로이를 떠났을 때 제우스께서
내게 자우 셨던 고난에 찬 귀향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소이다.

(바) 공간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의 생존 터전이며, 인간의 의식은 공간에 의존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는 자신의 존재에 상응하는 저마다의 고유한 자리와 위치와 공간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집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집은 인간다운 삶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집은 자신의 세계를 질서 있게 하는 하나의 중심이다. 곧, 인간은 집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바슐라르는 "집은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최초의 세계이다."라고 하며, 집이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기본 바탕이라고 보았다. 또한, 집은 노동과 노력을 기울이는 외적 공간에서 돌아와서 어머니의 품처럼 휴식과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내적 공간이다. 즉,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그러므로 하이데거의 말처럼 집의 실존적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은 인간의 위기, 즉 본래적 의미의 거주 공간으로서의 '고향의 상실'을 뜻한다.

(사) 고갱은 프랑스 파리에서 증권 거래업자로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예술가로서의 삶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관에 부딪혔지만, 가난한 시절에 만난 고호와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생활하면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잦은 다툼으로 결국 3개월 만에 고갱은 고호의 곁을 떠났다. 고호가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이 결별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고호와 헤어진 고갱은 강한 원색이 두드러진 상징주의 미술을 시도해 나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근대화된 서구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고향 프랑스를 떠나 홀연히 남태평양의 타히티로 길을 떠났다. '아아 오라나 마리아'는 고갱이 타히티에서 그린 작품으로, 이는 타히티 원주민 말로 '나는 마리아를 경배한다.'는 뜻이다. 어린 예수와 함께 있는 성모 마리아에게 두 손을 모아 경배하는 두 여인을 그린 종교적인 그림으로, 고갱은 서양 미술의 대표적 아이콘인 성모 마리아를 재해석하였다.

그림 속의 마리아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타히티 여인이 허리에 두르는 전통 의상을 걸치고 어린 예수를 목말 태우고 있다. 왼쪽에는 노란색 날개를 가진 천사와 타히티 여인들이 서 있다. 이들이 성모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장면과 같은 전체적인 구도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문화의 도상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고갱은 문명에 노출되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표현하고자 그들의 모습을 타히티 원주민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인류의 근원을 타락한 서양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인 남태평양 타히티 원주민에게서 찾고자 하였다.

(아) 나는 북관에 혼자 앓아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드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데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 씨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자) 1961년 미국에서 심장병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주로 모여 살던 빈민촌인 로세토 마을의 55~64세 사이 인구 가운데 심장병으로 사망한 비율이 영(0)에 가깝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로세토 사람들의 생활은 기름진 음식과 음주, 흡연에 매우 열악한 노동 조건까지 의학적으로는 심장에 좋지 않은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이들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밝혀낸 원인은 공동체 문화에 있었다. 로세토 마을에는 상호 존중과 협동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웃끼리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대소사를 함께 해 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작용한 것이다. 로세토 효과는 건강 부분에만 그치지 않았다. 연구가 진행되던 시기에 이 지역은 범죄율도 영(0)이었고, 대학 진학률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사례 덕분에 미국 사회에서는 계층 간 갈등, 차한 등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에 있어 공동체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고향을 잃어버린 인물들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라)의 인물들이 고향에 부여했던 의미와 이들이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된 원인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바)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정씨와 제시문 (마)의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생각이 다른 이유를 서술하고,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사)의 고갱의 사례를 토대로 제시해 보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에 나타난 나와 의원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설명하고, 공동체 문화 형성의 조건과 효과를 제시문 (아)와 제시문 (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나. 예시 답안

[문제 1] 예시 답안

고향이 갖는 의미와 고향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에서 고향은 생활고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로 마음에 자리 잡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일제의 수탈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화된 고향의 모습을 본 후 슬퍼하면서 상실감을 느낀다. (나)에서 고향의 의미는 전통이 보전되고 삶의 스승인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다. 그러나 사라진 왕소나무로 상징되는 난개발된 모습에서 고향이 타락했다는 깨달음이 상실감의 원인이 되었다. (다)에서 고향은 이민 2세대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만, 동질감을 느꼈던 곳에서 외모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이방인임을 자각한다. (라)의 고향은 정처 없는 삶을 끝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착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업적 개발로 인해 급변한 고향 소식을 접한 것을 계기로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고향을 상실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고향은 평화와 행복, 전통과 추억, 소속감, 향수 등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상실하게 된 이유는 상업화, 산업화, 외세침략, 정체성 혼돈 등 다양하다. (566자)

[문제 2] 예시 답안

(라)의 정씨는 정착하려던 고향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을 망설이고 있다면 (마)의 오디세우스는 귀환을 방해하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귀향을 지향한다. 집을 인간 존재의 근거이자 실존적 의미가 부여되는 내적 공간으로 설명하는 (바)에 근거할 때, 귀향에 대한 둘의 생각이 다른 이유를 알 수 있다. 정씨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고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향을 주저한다면, 오디세우스는 고향을 대체 불가능한 삶의 중심이자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내적 공간으로 줄곧 확신했기 때문에 굳은 귀향의 의지를 표명한다. 고향의 가치가 자신이 태어난 공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고향 프랑스를 등지고 타히티로 떠난 (사)의 고갱은 자신의 꿈인 생명주의 미술을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서양의 도상을 근간으로 하되, 타히티 원주민의 모습을 통해 순수한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서양 미술을 재해석했다. 고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은 대안을 찾아 타지로 떠나는 적극적인 자세와 기존의 표현 방식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565자)

[문제 3] 예시 답안

(아)의 나는 처음엔 의원을 헌실과는 거리감 있는 타자로 여겼으나, 의원이 고향을 물은 것을 매개로 마음이 열리고 고향과 관련된 대화를 지속하면서 친밀감이 형성되어 우리라는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나와 의원은 낯설고 서먹한 사이에서 따스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친숙한 관계로 발전되었다. (아)와 같이 특정 매개로 맺어진 일차적인 관계에서 조성된 친밀함이 공동체 문화 형성의 기본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친밀감에 기반하여 (자)에 나타난 희로애락을 함께 느끼며 상호 이해하고 대소사에 참여하는 등 개인적인 관계가 심화·확대되는 과정에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공동체 문화는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고, 교육 환경 개선, 치안 개선, 계층 간 갈등 해소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효과를 낳는다. (419자)

다. 채점 기준

[문제 1] 채점 기준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❶ 각 제시문에서 의미와 원인을 찾아 제시 (32점)		
	❷ 논리적 구성 (3점)과 결론 제시 (5점)		

[문제 2] 채점 기준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❶ (바)를 근거로 (라)와 (마)의 생각이 다른 이유를 서술했는지 평가 (25점)		
	❷ 새로운 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이 필요한 자세를 (사)를 근거로 제시했는지 평가 (15점)		

[문제 3] 채점 기준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❶ (아)의 인간관계 변화 과정 및 촉발 계기를 기술했는지 평가 (10점)		
	❷ (아)와 (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체 문화 형성의 조건과 효과를 기술했는지 평가 (10점)		

라. 출제 의도 및 제시문 출전

[문제 1]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과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고향이란 맥락 속에서 꼼꼼하게 읽어 글의 요지를 정확 하게 이해한 후, 각 제시문에 등장하는 인물 들에 내재된 고향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고향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 다양한 원인을 찾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의 출제 의도는 1) 특정한 관점에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다각도로 비교해 보는 균형 잡힌 입체적 사고력과 2) 특정한 사례를 근거로 어떤 상황에 직면한 자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를 모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 하자면, 집의 의미를 공간적 삶의 터전이란 범위를 넘어 존재의 근거이자 내적 공간으로 설명하는 텍스트를 근거로 소설 속 두 인물이 갖는 귀향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비교하는 통합적 응용력을 평가하고, 다문화시대 자신이 꿈꾸는 바를 이루기 위해 선택한 '제2의 고향'에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찾는 대안 제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문제 3]의 출제 의도는 1) 특정한 맥락에서 짧은 시 텍스트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제에 접근하는 해석 능력과 2) 이 문학 텍스트의 내용을 일견 직접적인 연계가 없어 보이는 다른 사회 문화 현상을 분석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 하자면, 시 텍스트에 나타난 인간 관계의 변화 양상과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독해력을 평가한다. 다음으로는 시 독해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대입하여 이해하는 능 력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공동체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는 사고력을 평가한다.

제시문 출전

- 제시문 (가): 현진건, 「고향(故鄕)」, 이주영 외,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EBS, 2018, 174-175쪽.
- 제시문 (나): 이문 구, 「관촌수필」, 한철우 외, 『문학』, 비상교육, 2014(2016), 56-60쪽.
- 제시문 (다): 「재외 동포가 느끼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남궁달화 외, 『생활과 윤리』, 교학사, 2014(2016), 289쪽
- 제시문 (라): 황석영, 「삼포로 가는 길」, 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 신사고, 2014(2017), 245-250쪽.
- 제시문 (마): 호메로스, 「오디세이아」, 김종철 외, 『고전』, 천재교육, 2014(2016), 251-252쪽
- 제시문 (바): 「주거 문화와 윤리적 문제」, 변순용 외,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2014(2017), 206쪽.
  「주거의 윤리적 의미」, 정창우 외, 『생활과 윤리』, 미래엔, 2014(2016), 256쪽.
- 제시문 (사): 「이아 오라나 마리아」, 박병기 외, 『윤리와 사상』, 지학사, 2014(2016), 176쪽.
- 제시문 (아): 백석, 「고향」, 김중신 외, 『국어 II』, 교학사, 2014(2016), 156쪽.
- 제시문 (자): 「로세토 마을의 비밀」, 신형민 외, 『사회·문화』, 비상교육, 2014(2017), 90쪽

2. 경영경제계열

가.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데서 오시는 길입니까?"

"흥,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회사(동척)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자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금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김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좇겨 가는 운명이어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중략]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립기도 하여서 홀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구경도 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디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뭔기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퍽 변했겠지요."

"변하고 무어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않더마."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단 말씀이오?"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즐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기오?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오?"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썩어 넘어진 서까래, 물풀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오?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오?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싶었다.

(나) 시골을 다녀오되 성묘가 목적이기는 근년으로 드문 일이었다. 세모(한 해가 끝날 무렵)가 되면 한두 군데서 들어오던 세찬(연말에 선사하는 물건)을 놓고 으레껀 꾸중이시던 할아버지 말씀이 자주 돼살아나 마음 한 켠이 결리지 않은 바도 아니었지만, 시절이 이러매 신정 연휴를 빌미할 수밖에 없음을 달리 어찌랴 하며 견딘 거였다. 그러나 할아버지한테 결례(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나 자신에게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아주 어려서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가문을 지킨 모든 선인 조상들의 심상은 오로지 단 한 분, 할아버지 그분의 인상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받은 사랑이며 가는 정으로야 어찌 어머니 위에 다시 있다 감히 장담할 수 있을까마는, 그럼에도 삼가 할아버지 한 분만으로 조상의 넋을 가늠하되, 당신 생전에 받은 가르침이야말로 진실로 받들고 싶도록 값지게 여겨지는 터임에, 거듭 할아버지의 존재와 추억의 조각들을 모든 것의 으뜸으로 믿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한내읍에 닿았을 때는 이미 세 시도 겨워 미끌아 해거름을 만나게 될 그런 어름이었다. 겨울비를 맞으며 고향을 찾아보기도 난생처음인데다 정 두고 떠났던 옛 산천들이 돌아보이자, 나는 설레기 시작한 가슴을 부접할 길이 없었다.

나는 한동안 두 눈을 지릅뜨고 빗발 무늬가 잦아 가던 창가에 서서, 뒷동산 부엉재를 감싸며 돌아가는 갈미리 부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들든 것과는 별도로 정말 썰렁하고 울적한 기분이었다.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이었건만, 옛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던 것이다. 옛 모습으로 남아난 것이 저토록 귀할 수 있을까.

그중에서도 맨 먼저 가슴을 후려친 것은 왕소나무가 사라져 버린 사실이었다. 분명 왕소나무가 서 있던 자리엔 화양간만한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 가게 굴뚝만이 풀볼견으로 뻗질러 서 있던 것이다.

그 왕소나무 잎새에 누렇물이 들고 가지에 삭정이가 끼는 걸 보며 고향을 뜨고 십삼 년 만이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긴 했지만, 언제 베어다 켜 썼는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현장을 목격하니 오장에서 부레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사백여 년에 걸친 그 허구한 풍상을 다 부대껴 내고도 어느 솔보다 푸르던, 심장생의 으뜸다운 풍모로 마을을 지켜 온 왕소나무가 아니었던가. 내가 일곱 살 나 천자문을 떼고 책씻이도 마친 어느 여름날 해설핀 석양으로 잊지 않고 있지만, 나는 갯가 제방 둑까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온 마을을 쓸어 삼킬 듯이 쳐들어오던 바다 밀물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이젠 완전히 타락한 동네구나—. 나는 은연중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마을의 주인(왕소나무)이 세상 뜬 지 오래라니 오죽해졌으랴 싶기도 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더욱이 피서지로 한몫해 온 탓에, 해수욕장이 개장된 여름이면 밤낮 기적 소리가 잘 틈 없던 철로 가에 서서, 그 숱한 소음과 매연을 마시다 지쳐, 영물의 예우도 내던지고 고사해 버린 왕소나무의 운명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가슴이 쓰리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실향민. 나는 어느덧 실향민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느낌을 덜어 버릴 수가 없었다. 고향이랬자 무덤들밖에 남겨 둔 게 없던 터라 어차피 무심하게 여겨 온 셈이긴 했지만, 막상 퇴락해 버린 고향 풍경을 대하니, 나 자신이 그토록 처연하고 헙헙(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느낌)하며 외로울 수가 없던 것이다.

(다) 우리 부모님은 이민 1세대로, 나는 백인 마을에서 자랐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또래 녀석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다. 사람들은 곧잘 물었다.

"웨어 아 유 프롬(Where are you from)?"

내 대답은 늘 똑같았다. "루이지애나, 내 고향은 루이지애나예요."

물론 그건 사람들이 예상한 답변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냐. 중국이나 일본 어디서 왔느냐는 말이지."

그 두 나라 사이에 낀 반도국을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았다.

일곱 살 때 나는 처음 한국에 가 보았다. 가방은 무거웠고 한국어도 서툴렀지만 이방인이라는 느낌은 없었다. 순진하게도 나는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믿었다.

어디를 가도 겁은 미리였다. 쌍꺼풀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느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아시아인'은 없었다. 사람들은 내게 "눈이 크다"거나 "작고 말랐다"라고 말했다. 겨우 두 달 동안이었지만 한국에서 내가 받은 느낌은 몇 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느끼고 기억하게 해 주었다.

내가 다시 한국에 간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을 앞둔 여름이었다. 나는 금세 사람들이 예전만큼 내게 관대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 부모님은 화가 나서 내게 전화를 거셨다. 내가 버릇없게 굴었기 때문이다. 너무 솔직한 질문과 서양식 사고방식이 친척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나는 삼촌께 나한테 화가 나셨느냐고 여쭈었다.

삼촌은 "아니다. 너한테 화가 난 건 아니야. 단지 널 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분명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한국말로 미국 애들 생각을 말하는 건 이상한 일이니까. 넌 한국 사람이 아니란다. 우리말을 할 줄 아는 미국인이지."라고 답하셨다.

충격이었다. 미국에 있을 때처럼 한국에서도 나는 이방인이었다.

(라)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사방의 둘레)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죄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어디루 가려오?"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갈이 가실라우?" [중략]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불도저)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뭣 땜에요?"

"낸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땐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마)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오디세우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 지중해를 표류하게 된다. 고국 이타케 섬을 떠난 지 어느덧 20년 이 흘렀는데, 그는 여전히 여신 칼립소의 섬에 억류당한 상태다. 오디세우스는 신들의 도움으로 칼립소의 섬을 떠나 파이아케스 섬의 알키노오스 왕의 궁전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랑에 휩쓸리고, 괴물과 마녀를 만나는 등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잃게 된 사정을 이야기한다.

먼저 내 이름을 말씀드리겠소이다. 그대들도 내 이름을 알도록.
나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올시다! 나는 온갖 지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내 명성은 이미 하늘에 닿았소.
멀리서도 잘 보이는 이타케가 내 고향이오. 그곳에는 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소.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네리톤 말이오.
이타케는 야트막하게 그리고 서쪽으로 땐 위에 자리 잡고 있고,
이들 다른 섬들은 새벽과 태양을 향해 떨어져 있지요.
이타케는 바위투성이의 섬이지만, 젊은이들의 좋은 유모(乳母)지요.
나로서는 자기 나라보다 달콤한 것은 달리 아무것도 볼 수 없소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칼립소는 나를 남편으로
삼으려고 자신의 속이 빈 동굴들 안에 나를 붙들어 두려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아이아이에 섬의 교활한 키르케도 나를
남편으로 삼기를 열망하며, 자신의 궁전에 나를 붙들어 두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들도 내 가슴속 마음을 설득할 수는 없었소.
이렇듯 누군가가 부모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낯선 나라의 풍요한 집에서 산다 해도,
고향 땅과 부모보다 더 달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법이라오.
자, 나는 그대에게 내가 트로이를 떠났을 때 제우스께서
내게 지우셨던 고난에 찬 귀향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소이다.

(바) 공간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의 생존 터전이며, 인간의 의식은 공간에 의존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는 자신의 존재에 상응하는 저마다의 고유한 자리와 위치와 공간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집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집은 인간다운 삶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집은 자신의 세계를 질서 있게 하는 하나의 중심이다. 곧, 인간은 집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바슐라르는 "집은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최초의 세계이다."라고 하며, 집이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기본 바탕이라고 보았다. 또한, 집은 노동과 노력을 기울이는 외적 공간에서 돌아와서 어머니의 품처럼 휴식과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내적 공간이다. 즉,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그러므로 하이데거의 말처럼 집의 실존적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은 인간의 위기, 즉 본래적 의미의 거주 공간으로서의 '고향의 상실'을 뜻한다.

(사) 고갱은 프랑스 파리에서 증권 거래업자로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예술가로서의 삶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관에 부딪혔지만, 가난한 시절에 만난 고흐와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생활하면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잦은 다툼으로 결국 3개월 만에 고갱은 고흐의 곁을 떠났다.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이 결별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고흐와 헤어진 고갱은 강한 원색이 두드러진 상징주의 미술을 시도해 나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근대화된 서구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고향 프랑스를 떠나 홀연히 남태평양의 타히티로 길을 떠났다. '아아 오라나 마리아'는 고갱이 타히티에서 그린 작품으로, 이는 타히티 원주민 말로 '나는 마리아를 경배한다.'는 뜻이다. 어린 예수와 함께 있는 성모 마리아에게 두 손을 모아 경배하는 두 여인을 그린 종교적인 그림으로, 고갱은 서양 미술의 대표적 아이콘인 성모 마리아를 재해석하였다. 그림 속의 마리아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타히티 여인이 허리에 두르는 전통 의상을 걸치고 어린 예수를 목말 태우고 있다. 왼쪽에는 노란색 날개를 가진 천사와 타히티 여인들이 서 있다. 아들이 성모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장면과 같은 전체적인

구도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문화의 도상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고갱은 문명에 노출되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표현하고자 그들의 모습을 타히티 원주민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인류의 근원을 타락한 서양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인 남태평양 타히티 원주민에게서 찾고자 하였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고향을 잃어버린 인물들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라)의 인물들이 고향에 부여했던 의미와 이들이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된 원인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바)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정씨와 제시문 (마)의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생각이 다른 이유를 서술하고,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사)의 고갱의 사례를 토대로 제시해 보시오. [40점, 550-570자]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날씨는 맑음과 비 두 가지 경우만 있고, 어느 날의 날씨가 맑을 때 그 다음 날에도 맑을 확률은 $\frac{2}{3}$이고, 어느 날에 비가 올 경우 그 다음 날에도 비가 올 확률은 $\frac{5}{6}$라고 가정한다. 또한, 그날의 날씨는 바로 전날의 날씨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서울에서 도시 A까지 가는데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승용차와 고속버스 두 가지 경우만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걸리는 시간을 각각 독립적인 확률변수 X와 Y라고 할 때, X와 Y는 그날의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확률분포를 따른다.

- 날씨: 맑음

$\begin{cases} P(X=4)=0.4 \\ P(X=5)=0.6 \end{cases}$ $\begin{cases} P(Y=4)=0.5 \\ P(Y=5)=0.5 \end{cases}$ (단위: 시간)

- 날씨: 비

$\begin{cases} P(X=4)=0.1 \\ P(X=5)=0.9 \end{cases}$ $\begin{cases} P(Y=4)=0.4 \\ P(Y=5)=0.6 \end{cases}$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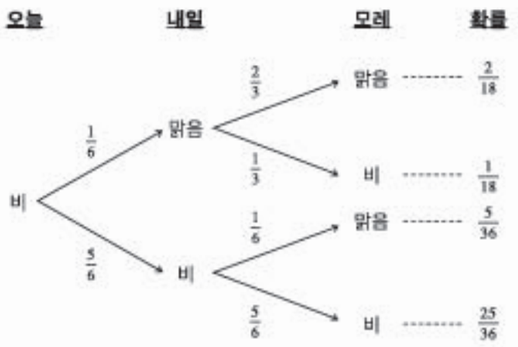
[문제 3] 철수와 영희는 서울에서 고향인 도시 A까지 각각 승용차와 고속버스를 타고 가기로 하였다. 오늘 현재 비가 내리고 있을 때, 철수와 영희가 모레 아침 9시에 출발하여 두 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날 오후 2시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나. 예시답안

[문제 1]과 [문제 2]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인문사회계열 I'과 동일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것

[문제 3] 예시 답안

❶ 오늘 비가 올 때 모레 날씨에 대한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즉, 모레 날씨가 맑을 확률은 $\frac{2}{18}+\frac{5}{36}=\frac{9}{36}=\frac{1}{4}$이고, 비가 올 확률은 $\frac{1}{18}+\frac{25}{36}=\frac{27}{36}=\frac{3}{4}$이다.

❷ 철수와 영희의 도착 시간에 대한 경우의 수와 그에 따르는 확률은 날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날씨가 맑은 경우

철수의 도착 시간	영희의 도착 시간	확률
1시	1시	$0.4 \times 0.5 = 0.2$
1시	2시	$0.4 \times 0.5 = 0.2$
2시	1시	$0.6 \times 0.5 = 0.3$
2시	2시	$0.6 \times 0.5 = 0.3$

즉, 날씨가 맑은 경우 두 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날 오후 2시에 도착할 확률은 $0.2 + 0.3 + 0.3 = 0.8$이다. 또는 둘 다 1시에 도착하는 경우의 여사건을 생각하면 $1 - 0.2 = 0.8$이다.

- 비가 내리는 경우

철수의 도착 시간	영희의 도착 시간	확률
1시	1시	$0.1 \times 0.4 = 0.04$
1시	2시	$0.1 \times 0.6 = 0.06$
2시	1시	$0.9 \times 0.4 = 0.36$
2시	2시	$0.9 \times 0.6 = 0.54$

즉, 비가 내리는 경우 두 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날 오후 2시에 도착할 확률은 $0.06 + 0.36 + 0.54 = 0.96$이다. 또는 둘 다 1시에 도착하는 경우의 여사건을 생각하면 $1 - 0.04 = 0.96$이다.

따라서 철수와 영희 두 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날 오후 2시에 도착할 확률은 $\frac{1}{4} \times 0.8 + \frac{3}{4} \times 0.96 = \frac{1}{4}(0.8 + 2.88) = 0.92$이다.

다. 채점 기준

[문제 1]과 [문제 2]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인문사회계열 I'과 동일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것

[문제 3] 20점 만점

- 오늘의 날씨를 기준으로 모레의 날씨에 대한 확률을 제대로 계산한 경우: +5점
- 모레의 날씨가 맑을 경우 두 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날 오후 2시에 도착하는 경우를 올바르게 찾아내고 그 확률을 제대로 계산한 경우: +5점
- 모레에 비가 내리는 경우 두 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날 오후 2시에 도착하는 경우를 올바르게 찾아내고 그 확률을 제대로 계산한 경우: +5점
- 모레의 날씨에 따라 해당하는 확률을 제대로 계산한 경우: +5점
- 가)에서 모레의 날씨에 대한 확률을 잘못 계산하였어도 그 잘못된 값을 가지고 나), 다), 라)에서 제대로 계산한 경우 추가로 감점하지 않음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2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라. 출제 의도 및 제시문 출전

[문제 1]과 [문제 2]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인문사회계열 I'과 동일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것

[문제 3]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확률적 사건과 이와 관련된 확률 및 확률분포의 개념은 논리적 사고 및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본 문제는 날씨가 교통수단의 이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률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각 상황에서의 확률에 대한 비교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평가한다. 본 문제는 이산확률변수와 그 확률분포에 대한 기본 개념의 이해도를 평가하며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볼 수 있다.

제시문 출전

- 「II-1-2 확률의 기본 성질」, 정상권 외 7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6, 83-93쪽.
- 「III-2-1 확률의 덧셈정리」, 이준열 외 9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육, 2016, 106-109쪽.
- 「II-1-2 확률의 기본 성질」, 신항균 외 11인, 『확률과 통계』, 지학사, 2016, 71-76쪽.
- 「II-1-2 확률의 덧셈정리」, 김창동 외 14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16, 85-91쪽.
- 「II-2-1 조건부 확률의 뜻」, 정상권 외 7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6, 95-101쪽.
- 「III-2-2 조건부확률과 확률의 곱셈정리」, 이준열 외 9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육, 2016, 110-115쪽.
- 「II-2-1 조건부 확률」, 신항균 외 11인, 『확률과 통계』, 지학사, 2016, 81-85쪽.
- 「II-2-1 조건부 확률」, 김창동 외 14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16, 93-97쪽.
- 「II-2-2 독립사건과 종속사건」, 정상권 외 7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6, 102-104쪽.
- 「II-2-2 사건의 독립과 종속」, 신항균 외 11인, 『확률과 통계』, 지학사, 2016, 86-90쪽.
- 「II-2-2 사건의 독립과 종속」, 김창동 외 14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16, 98-103쪽.
- 「II-2-2 사건의 독립과 종속」, 황선욱 외 10인, 『확률과 통계』, 좋은책 신사고, 2016, 82-86쪽.

3. 인문사회계열 II

가.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4. 음악실(낮)

함 선생님: 음악 하는 사람이 악보를 보지 못한다는 건, 한국 사람이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생들, 자존심이 상한 표정을 지으며 웅성웅성거린다.)

함 선생님: 자, 주목! 이 계이름은 뭘까요? (아무도 집중하지 않자 더 큰 소리로 칠판을 탕탕 쳐 가면서) 자, 주목! 악보를 볼 때, 높은음자리표가 그려지고, (주위를 둘러보며) 자, 주목!

아름: 원래 소리 배울 때 악보 보고 안 해요. 그냥 따라 부르는 거지.

insert 함 선생님의 집 책상 한쪽에 "국악 용어 해설집" 책이 쌓인다.

#16. 음악실(낮)

함 선생님: 자, 주목! 오늘은 발성에 대해서 수업할 겁니다.

함 선생님: (은경을 가리키며) 음정이 흔들렸잖아요, 지금.

은경: (당황한 듯) 음정이요? 농음(국악에서 소리나 연주자가 내는 즉흥적인 꾸밈음)인데요.

함 선생님: 농음?

은경: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함 선생님: 잘 들어요. 음정을 정확하게 내야 화음이 쌓이지, 그렇게 끝이 흔들리면 음정이 제대로 쌓아지겠어요? [중략]

함 선생님: (한숨을 쉬며) 좋습니다. 이게 우리 음악, 국악의 맛이라고 칩시다. 근데 합창은 그냥 국악이 아니에요. 음정이 정확하게 쌓아져야지, 그래야 화음이 나오지, 음정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름: 그럼 다 같이 농음으로 약속하면 되죠. (함 선생님, 바닥을 보며 고개를 떨구고 한숨.)

insert 함 선생님 집, 책상 위 "국악 용어 해설집" 위에 "창작 국악 관현악", "한국 민요 합창곡집", "다시 보는 판소리" 책이 쌓인다.

#18. 음악실(오후)

함 선생님: 어제는 내가 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편안하게 갑시다. 자, 뭘 할 거냐면! 누가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대결을 할 거예요.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음정 쌓기 대결을 하고, 웃긴 표정과 음정 이탈로 아이들의 표정에는 웃음이 넘친다.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

#20. 음악실(오후)

함 선생님: 여러분하고 함께 합창을 만들어 가면서 너무 내 소리만, 내 음악만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합창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듯이 함께할 때 좋은 소리가 나는 건데, 내가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장단, 가락, 시김새,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 합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다가왔다. 곧 방학이었고, 앞으로 내 꿈을 위해서도 그러면 뭔가 이참에 아버지에게 확실하게 보여 줄 것이 있었다. 시험공부를 시작하던 처음엔 하루 네 시간씩 자고, 시험이 시작되어 그것이 끝나는 나흘 동안엔 두세 시간씩만 잠을 잤다.

기다리던 성적표는 방학 이틀 전날에야 우편으로 날아왔다.

"주산만 아니면 전교에서 1등도 할 수 있었는데……."

"애비도 그게 궁금해서 그런다. 주산 점수는 왜 그렇게 나온 건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업 학교에선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그걸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건. 저도 그동안 하노라고 했는데."

"그러기에 왜 애초에 상고를 가?"

"몰랐지요, 그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해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벌어 농사지으려고 했던 건데."

"그건 뭐 아무래도 괜찮다. 적성이 맞지 않으면 적성이 맞는 쪽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학교로 가면 주산 같은 거 놓지 않아도 될 테고."

"……."

"이제 적성이 아닌 걸 너도 알았으니 지금이라도 학교를 옮겨 줄까?"

"농고로요?"

"아니, 인문계 학교로 말이다."

"거긴 싫어요. 농고라면 몰라도."

"인문계 학교로 옮기면 지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거다. 또 지금처럼 하면 나중에 전학을 가더라도 먼저 거기로 간 애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안 가요, 거긴. 공부 오래 하는 거 싫어서 일부러 상고를 간 건데. 주산만 아니면 괜찮겠는데, 주산 때문에 졸업을 한다 해도 은행 같은 데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이러다 나중에 바로 농사지을 거예요."

그 기말고사를 통해 나는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이대로라면 나 혼자 애만 쓰다 말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한 아버지에게 내 생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아버지 마음속에 어떤 안타까움 같은 걸 심어주고, 또 앞으로도 내 뜻과 내 꿈이 농사에 있다는 걸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확실히 해 두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착실하게 고랭지 농사의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봐 두고 또 손으로 익혀 두자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인문계 학교 전학 얘기를 하며 말리던 아버지도 나중엔 마지못해 거기까지는 허락을 했다.

(다) 심플리치오: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궤변, 이율배반, 기타 여러 거짓을 구별해 내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런 그가 이것에 대해 착각했을 리가 없어. [중략]

살비아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어떤 물체를 던져 올리면 그 물체가 같은 수직선을 따라 내려와 던졌던 바로 그 위치에 떨어진다는 것이지. 심 플리치오, 자유롭게 떨어지는 물체가 곧은 수직선을 따라 중심으로 떨어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를 인용하지 말고 해 보게.

심플리치오: 눈으로 보면 알게 되지. 탑은 똑바로 수직으로 서 있고, 거기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스칠 듯 탑을 따라 떨어지지.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옆으로 벗어나지 않고 원래 떨어뜨렸던 곳의 바로 아래 지점에 떨어지게 돼. [중략]

살비아티: 그렇다면 말이야. 만약에 배가 빨리 움직이고 있을 때 돛대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돌이 정지해 있는 배에서 떨어뜨렸을 때와 같은 지점에 떨어진다면, 돌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배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나?

심플리치오: 절대로 판단할 수 없지. 그건 마치 어떤 사람이 잠을 자는지, 깨어있는지, 맥을 짚어 보아 판단하려는 것과 비슷한 것이야. 맥은 늘 뛰니까 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

살비아티: 잘 알겠네. 그런데 자네는 실제로 배에 올라가 이 실험을 해 봤나?

심플리치오: 해 본 적은 없어. 하지만 나는 이 실험을 인용한 권위자들이 이걸 엄밀하게 관찰했을 거라고 믿어. 게다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지.

살비아티: 자네 자신을 보면 그 권위자들이 실험을 해 보지도 않고서 이것을 예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자네는 실제로 해 보지 않고서도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언명을 굳게 믿고 있잖아? 그 권위자들도 아마 그런 식이었을 거야. 아니, 그런 식이었던 게 틀림없어. 다들 그들의 전임자를 믿고 기대었기에, 거슬러 올라가 봐도 누구 한 명 실제로 실험을 해 본 사람이 없어. 실제로 실험을 해 보면 책에 써 놓은 것과 반대가 됨을 알게 될 거야.

(라) 반장이 된 형우는 시험 날 모범생들과 짜고 기표에게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원치 않는 도움에 기분이 나빠진 기표는 재수파들을 불러 형우를 때린다. 하지만 형우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도 기표를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의리의 사도로 부각시킨다.

기표가 그 사건 다음날부터 내리 사흘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도 재수파들은 학생부에 불려 가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중략]

형우와 기표 사이에도 이렇다 할 마찰이 없이 여름 방학이 지났다. 기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교단에서 내려서고 그 대신 반장 임형우가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단 위에 섰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그 친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두를 잡은 형우는 언젠가 하굣길에서 내게 들려준 기표네 가정 형편을 반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형우의 혀였다. 나한테 얘기를 들려줄 때의 그런 적대감은 씻은 듯 감추고 오직 우의와 신뢰 가득한 말로써 우리의 친구 기표를 미화하는 일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나는 얼마 전 기표가 버스 안내원을 하던 여동생을 몹시 때린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몸이 약해 버스 안내원을 그만두었던 것인데 생활이 더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 나가기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반 아이들은 사뭇 숙연한 자세로 형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형우는 기표네 가정 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 온 기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의 한 자락에 붙들어 맨 다음 벌거벗기려 하는 것 같았다. 기표는 판잣집 그 냄새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 가락을 허겁지겁 건져 먹는 한 마리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났다. [중략]

"우리들은 가끔 학교에 싸 가지고 온 도시락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으로 배고파 보지 못한 우리들의 우매함이었습니다. 남의 잔 도시락을 훔쳐 먹어야 했던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지냈습니다. 나는 반장으로서 그 사실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나는 오늘이라도 우리의 친구 기표를 돕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깊은 감동의 강물이 모두의 가슴 한가운데를 출렁이며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중략]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기표의 자리가 빈 것을 알았다. 무단결석이었다. [중략]

그는 서랍에 편지 하나를 꺼내 우리들 앞에 내던졌다. 기표가 바로 밑의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였다. 편지 맨 앞줄에 이렇게 씌어 있었다.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마) 매체를 바로 보려면 매체의 속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모든 매체는 편집 과정을 거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나는 어느 날 오후,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쉴 때 먹으려고 사과 하나와 파도를 챙겨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가던 중에 사야 할 것이 생각나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내 모습을 본 누군가가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강룡,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들고 전철역 앞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표정은 암울해 보였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된다. 나는 방송 매체와의 면담을 좋아하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방송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매체는 편집을 하며 시청자는 편집 과정을 볼 수 없다. 또한 매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매체를 바로 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매체가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도 의도적인 편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맥락은 관계를 말하는데, 사건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사건의 본질은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전후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지녔는지에 따라 같은 소재를 두고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바) 전통적으로 라다크에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공격적인 행동이란 지극히 드물었다. 라다크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꼭꼭 숨기거나 억누르고 있는 것일까? 언젠가 나는 소남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라다크 사람들은 언쟁을 하지 않나요? 서양 사람들은 항상 하는데요."

"마을에서는 안 해요. 맞아요, 안 해요. 글쎄요……. 아주 드물어요, 어쨌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내가 다시 질문을 하자 소남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우리는 그저 함께 사는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땅의 경계선 같은 문제로 말이에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따져 보겠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양자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의견 차이가 생기면 제삼자가 거기서 조정 역할을 한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관련되어 있든 그에 맞는 중재자는 항상 그곳에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런 일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 중재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찾는 대상은 아니다. 상황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중재자이다. 누나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일 수도 있다. 나는 심지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중재자가 나타나 언쟁을 하던 다른 아이들 사이를 조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사) 배려 윤리는 도덕적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라는 구체적인 맥락을 중시하고, 보살핌의 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상이다. 나딩스가 보기에 정의 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답도 주지 못한다. 이에 대해 그녀는 관계성과 배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도덕성을 규정하면서, 진정한 윤리적 삶의 본질은 서로 알게 되고,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며, 상대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의 구체적인 요구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인간관계의 맥락을 벗어난 개인적 판단이나 결단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배려 윤리는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 사이의 만남을 중요시한다. 배려자는 타인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피배려자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피배려자는 배려를 수용하고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배려가 완성된다고 나딩스는 말하였다.

(아)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인간 존재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이성과 자율성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인간이 아닌 존재는 직접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동식물과 같은 존재는 인간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베이컨은 인간에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과학의 목적이 자연을 정복해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신은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지만 자연은 의식 없는 단순한 물질, 즉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기계론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자연 과학의 목표가 인간을 자연의 주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았다.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관점은 인간 중심주의 윤리의 바탕이 되었고, 자연을 탐구하고 개발하여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생태 중심주의 윤리는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기는 입장이다. 생태 중심주의 윤리는 생명 개체에만 초점을 맞춰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개체 중심적인 환경 윤리를 비판한다. 이에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개별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로 보아야 한다는 전일론적 입장을 취한다. 생태 중심주의 윤리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 레오폴드는 '대지 윤리'를 주장한다. 대지 윤리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동물, 식물, 흙, 물을 비롯한 대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존재의 이유가 있으며 대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수많은 존재가 서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생태 중심주의 윤리에서 생각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생태 중심주의 윤리는 생태계가 오랜 기간 동안 진화 과정을 통해 균형을 맞추어 왔으므로 인간의 무분별한 개입은 무익하다고 본다.

(자) 이 물건은 1995년 나이지리아의 교사인 모하메드바 아바에 의해서 고안되었다. 이 제품은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항아리와 두 항아리 사이의 공간에 채워진 모래와 물로 이루어져 있다. 항아리 사이의 물이 증발하면서 작은 항아리 안에 있는 열을 빼앗으므로 채소나 과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대기 중에 그냥 보관했을 때는 2~3일이면 상하던 토마토가 이 제

품을 이용하면 21일 동안 보존되고, 신선한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농부들의 소득이 증대된다. 이 제품의 가격은 1달러 정도이며 전기 없이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등장인물들이 서로 갈등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라)에서 등장인물들 간 '상호작용의 방식과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반 아이들이 형우의 연설을 들을 때 유의할 점을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서술하고, 반 아이들이 학급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점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에 설명된 생태 중심주의 윤리의 관점에서 인간 중심주의 윤리를 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인간 중심주의 윤리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자)의 사례에 근거하여 제시해 보시오. [20점, 400-420자]

나. 예시답안

[문제 1] 예시 답안

(가), (나), (다), (라)에는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과 결과가 나타난다. (가)는 교사가 학생들과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포용적 소통 방식을 취한 결과,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 아버지를 설득하려는 아들과 아들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려는 아버지 간 타협적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그 결과 갈등의 완전한 해소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부분적으로 완화된다. (다)에서는 기존 권위자의 학설을 맹신하는 입장과 실험을 통해 진리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 간에 반박과 옹호가 거듭되는 논쟁의 방식을 보여준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하게 된다. (라)에서는 형우가 선의를 가장해 학생을 선동해 기표를 무력화하고 기표는 보이지 않는 폭력에 소극적으로 침묵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그 결과 기표가 가출함으로써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이처럼 각 제시문은 상호작용 방식에서 포용적 소통, 배려적 설득, 대립적 논쟁, 일방적 선동과 소극적 침묵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결과에서는 갈등 해소, 갈등의 부분적 해소, 갈등 지속, 파국과 같은 차이를 보여준다. (567자)

[문제 2] 예시 답안

(마)는 특정 사건이 매체의 속성과 전달자의 의도에 따라 강조와 배제라는 편집을 거쳐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과 전달되는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맥락과 전달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 관점에서, (라)의 반 아이들은 형우의 연설을 들을 때 그 연설이 기표 와의 보이지 않는 대립적 관계와 형우의 위선적 의도로 인해 기표의 상황이 편집된 것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바)에서와 같이, 반 아이들은 학급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형우와 기표의 갈등을 자발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 (사)에서와 같이, 반 아이들은 관계성과 배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우정의 관계에 기반 한 배려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합하여 고려하면, 반 아이들은 형우와 기표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내고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중재 방식을 스스로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아가 반 아이들은 형우와 기표가 상호 간에 구체적인 요구를 표현하고 서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569자)

[문제 3] 예시 답안

제시문 (아)의 생태 중심주의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존재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를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그 결과 인간이 물질적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자연을 착취함으로써 인간과 생태계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 제시문 (자)의 항아리 사례는 흙, 모래, 물과 같은 재생 가능한 현지 재료를 활용하여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누구나 저렴하게 구입하여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과 생활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면 생태계 균형과 안정을 저해하지 않고도 물질적 향상과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400자)

다. 채점 기준

[문제 1] 채점 기준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❶ 각 제시문에서 각각 계기와 방식을 찾아 제시 (32점)		
	❷ 논리적 구성 (3점)과 결론 제시 (5점)		

[문제 2] 채점 기준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❶ (마)를 근거로 (라)의 형우의 연설을 들을 때 유의할 점을 서술했는지 평가 (20점)		
	❷ (바)와 (사)를 고려하여 반 아이들이 갈등 해소를 위해 갖춰야 할 점을 서술했는지 평가 (20점)		

[문제 3] 채점 기준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❶ (아)에서 인간 중심주의 윤리를 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생태 중심주의 윤리의 관점과 연계하여 비판한 경우 (10점)		
	❷ (자)의 사례에서 인간 중심주의 윤리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히 파악한 경우 (10점)		

라. 출제 의도 및 제시문 출전

[문제 1]의 출제 의도는 1) 등장인물들이 갈등 상황에서 표출하는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을 제시문에서 파악하는 독해력과 2) 상호작용의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비교, 대조하고 종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즉, 네 제시문을 상세하게 읽어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네 제시문에서 '주인공들의 상호작용 방식'과 '결과'를 찾아내고 자신의 글로 요약하고 정리하여, 이를 서로 비교하고 종합해야 한다. 대립하는 두 사람 간의 포용적 소통, 배려, 설득, 논쟁, 일방적 선동, 소극적 침묵과 같은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을 통해서 갈등의 해소, 절충을 통한 부분적 해소, 갈등 지속, 갈등의 파국화와 같은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됨을 인식해야 한다. 요컨대 제시문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방식의 차이가 상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파악하는 독해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의 출제 의도는 1) 직접적인 연계가 없어 보이는 텍스트를 근거로 메시지를 수용할 때의 유의점을 도출하는 추론적 사고 능력과 2) 갈등 해소에 필요한 자세를 모색하는 대안 제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마)에서 메시지가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다는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마)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는 데 구성원들이 자발적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갈등 당사자를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발적 중재자의 역할은 관계성에 기반한 상호 배려 행위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3]의 출제 의도는 1) 제시문의 논지를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하는 능력과 2) 이를 주어진 문제에 능동적으로 적용 및 재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아)에 설명된 두 가지 관점의 논지를 각각 파악한 후 한 관점을 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른 관점에서 파악하여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제시문 (자)의 항아리 기술을 이용하면 인간 중심주의 윤리 관점을 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훼손이라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인간의 물질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출전

- 제시문 (가): 백종민, 「두레소리」, 박영목 외, 『국어 I』, 천재교육, 2017, 47-49쪽.
- 제시문 (나): 이순원, 「19세」, 조현설 외, 『국어 I』, 해냄에듀, 2016, 24-31쪽.
- 제시문 (다): 갈릴레이,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 한철우 외, 『고전』, 하교학사, 2016, 93-109쪽.
- 제시문 (라): 전상국 「우상의 눈물」, 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 신사고, 2016, 419-426쪽.
- 제시문 (마): 이강룡, 「인터넷 시대의 매체 문화」, 박영목 외 12명, 『국어II』, 천재교육, 2017, 167-171쪽.
- 제시문 (바): 노르베리호지/양희승 옮김, 「오래된 미래」, 정민 외 14인, 『고전』, 해냄에듀, 2016, 298-305쪽.
- 제시문 (사): 「배려윤리사상」, 정창우 외 11명,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5, 207-208쪽.
  「배려 윤리의 특징과 의의」, 박병기 외 7명, 『윤리와 사상』, 지학사, 2016, 225쪽.
- 제시문 (아): 「인간 중심주의 윤리와 도구적 자연관」, 정창우 외 11인, 『생활과 윤리』, 미래엔, 2015, 120-121쪽.
  「생태 중심주의 윤리와 환경 문제」, 정창우 외 11인, 『생활과 윤리』, 미래엔, 2015, 130-131쪽.
- 제시문 (자): 김정태·홍성욱, 「적정 기술이란 무엇인가」, 이도영 외 7인, 『독서와 문법』, 창비, 2017, 255쪽.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인문계열)

V. 2019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093
2.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095
3. 논술/교과 성적 현황 097

V. 2019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093
2.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095
3. 논술 / 교과 성적 현황 097

V. 2019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 논술전형 경쟁률 47.8 : 1 (886명 모집, 42,399명 지원)
- 지원 인원 대비 실질 경쟁률은 10 : 1 안팎으로 대폭 감소

[표 1-1] 논술전형 경쟁률 및 추가합격률

논술유형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추가합격률
인문사회	206	10,473	50.8	35%
경영경제	243	8,834	36.4	17%
자연	437	23,092	52.8	37%
총계	886	42,399	47.8	31%

[그림 1-1] 2019학년도 논술전형 경쟁률 및 실질경쟁률

2019학년도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전체 47.8대 1로, 전년도(52.2:1)보다 하락하였다.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수시모집 타 전형에 비해 높지만, 실질경쟁률은 경쟁률의 50%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원서접수 마감 후 공지되는 경쟁률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계열별 경쟁률과 실질경쟁률(응시율/수능최저기준 적용)을 비교해보면 인문사회논술은 50.8:1→11.8:1, 경영경제논술은 36.4:1→11.4:1, 자연계논술은 52.8:1→9.6:1로 대폭 낮아진 경쟁률을 보였다.

[그림 1-2] 인문계열 경쟁률 상위 5개 모집단위(학과)

[그림 1-3] 자연계열 경쟁률 상위 5개 모집단위(학과)

계열별 경쟁률이 가장 높은 다섯 개 학과는 [그림 1-2],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문계열에서는 경영경제계열의 학과보다는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경쟁률이 높았다. 또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前 신문방송학부)와 심리학과는 6년 연속 최상위 경쟁률을 보였다. 자연계열에서는 의학부와 화학, 생명과학 관련 학과가 매년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새로 확대 개편된 소프트웨어학부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였다.

2.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 지원자 및 합격자의 약70% 일반고 출신 학생이 차지
- 지원자 및 합격자의 약38% 고3(졸업예정자)로 나타남[인문, 자연 합격자의 41%, 34% 고3(졸업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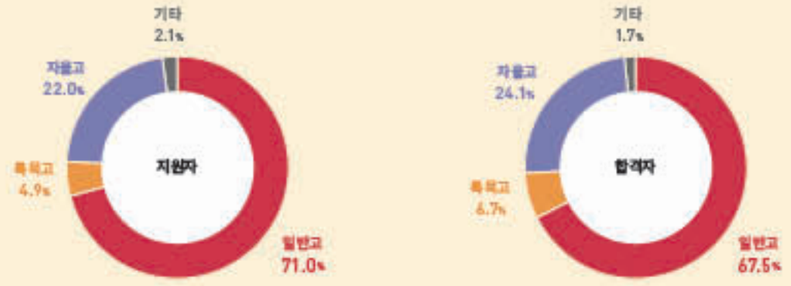
가. 고교유형별 분석

합격자의 68%가 일반고 출신이며 24%가 자율고, 7%가 특목고 출신 학생이었다. 특목고의 지원 및 합격비율은 인문계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계열 합격자중 특목고 출신학생의 비율은 낮다.

[표 2-2]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현황(%)

계열	지원				합격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인문	70.4%	9.3%	17.7%	2.7%	66.5%	11.6%	19.6%	2.2%
자연	71.5%	1.3%	25.5%	1.7%	68.6%	1.6%	28.7%	1.1%
계	71.0%	4.9%	22.0%	2.1%	67.5%	6.7%	24.1%	1.7%

[그림 2-2]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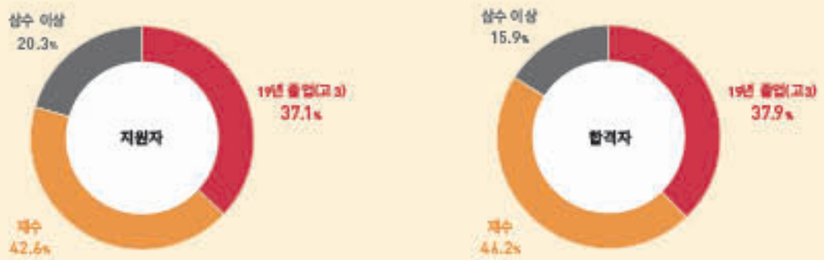
나. 고교 졸업시기별 분석

합격자 중 38%가 고3(졸업예정자) 학생이었다. 2018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재수생이 다소 강세를 보였다(지원 42.6%, 합격 46.2%). 계열별로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재수 지원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2-3]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졸업시기별 현황(%)

계열	지원			합격		
	19년 졸업(고3)	재수	삼수 이상	19년 졸업(고3)	재수	삼수 이상
인문	39.8%	41.4%	18.8%	41.3%	41.5%	17.2%
자연	34.8%	43.7%	21.5%	34.4%	50.9%	14.7%
계	37.1%	42.6%	20.3%	37.9%	46.2%	15.9%

[그림 2-3]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졸업시기별 현황



3. 논술 / 교과 성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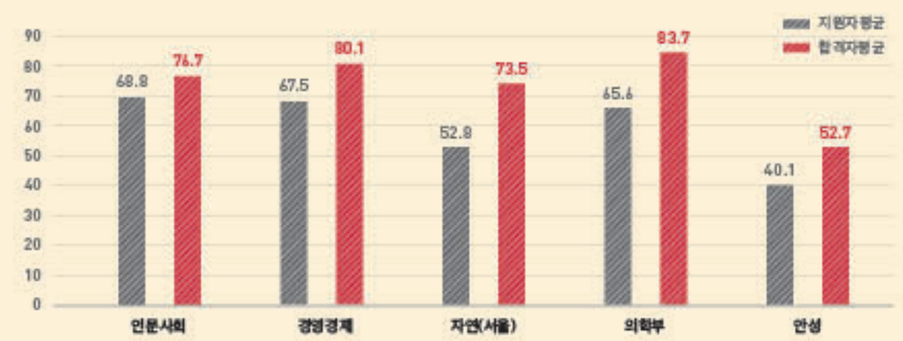
- 합격자 논술 평균 인문사회 76.7점 , 경영경제 80.1점 , 자연(서울/의학부 제외) 73.5점
- 경영경제, 자연계열 논술 수리문항의 고득점이 중요
- 교과 성적은 상위 10과목만 반영

가. 논술성적 분석

[표 3-1] 논술 유형별 지원/합격자 논술성적 현황

구분평균		지원		합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문사회계열		68.8	7.3	76.7	3.1
경영경제계열		67.5	9.1	80.1	2.0
자연계열	서울(의학부 제외)	52.8	14.5	73.5	6.4
	의학부	65.6	13.8	83.7	1.9
	안성	40.1	12.8	52.7	7.6

[그림 3-1] 논술 유형별 지원/합격자 논술성적 현황



본교는 쉬운 논술을 추구하고 있다. 논술전형에 출제되는 발췌지문 및 개념은 모두 고교과정의 교과서, EBS교재에서 인용된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본교 논술가이드북을 활용한다면 논술전형을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학과)에 따른 논술유형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비가 중요하다.
인문계열은 지원하는 모집단위에 따라 인문사회논술 또는 경영경제논술을 응시하게 된다. 인문사회논술은 언어논술 3문항, 경영경제논술은 언어논술 2문항과 수리논술 1문항으로 구성된다. 인문사회논술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76.7점, 경영경제논술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80.1점이다. 경영경제논술의 경우 수리논술의 고득점으로 인하여 인문사회논술에 비해서 합격자 평균성적이 높은 편이다. 수리논술의 경우 출제의도를 잘 파악하고,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접근과정과 정답을 작성하되, 수식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계열은 단일교과형(수학 3문항, 과학 1문항(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택1))으로 수학의 비중이 크다. 자연계열 서울(의학부 제외)의 합격자 논술 평균점수는 73.5점이나 표준편차가 인문계열 논술유형들에 비해 큰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합격자들 중에 평균보다 표준편차만큼 낮은 학생도 합격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자연계열 안성소재 학과의 합격자 논술 평균 점수는 52.7점, 표준편차 7.6으로 합격자의 논술 성적대가 낮다. 수능최저충족 가능성이 높다면 논술성적이 부족하더라도 합격가능성이 높아진다. 의학부는 합격자의 논술평균 점수는 83.7점으로 높은 반면, 표준편차는 1.9로 작은 편이다.

나. 교과 성적분석

[표 3-2] 지원/합격자의 교과 성적(상위 10과목) 현황

구분/평균		지원		합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문사회계열		2.8	1.3	2.2	0.9
경영경제계열		2.7	1.2	2.2	1.0
자연계열	서울(의학부 제외)	2.6	1.1	2.0	0.9
	의학부	1.9	1.1	1.2	0.3
	안성	3.4	1.2	2.6	1.0

[그림 3-2] 지원/합격자의 교과 성적(상위 10과목) 현황

본교 논술전형의 교과 성적 반영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상위 10과목에 한해 반영하는 것이다. 1~3학년 반영교과 전체 이수과목 중 학년별, 과목별 가중치 없이 단순히 석차등급이 가장 높은 10과목이 반영된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중 상위 10과목을,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 상위 10과목을 반영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 반영대상은 2020학년도 기준으로 2019, 2020년 2월 국내고교 졸업자이며, 그 외에는 논술성적에 의한 비교내신으로 반영된다.